

청년.청년
노동교육
판교인





본 교안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청소년 노동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교안은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제작하였으며, [표준교안개발팀]에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서명오, 이상은, 정현성, 조송자, 조혜진)와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 노동교육연구팀(이영주, 손여정, 박지은, 백순옥, 손여정, 최선화, 최원영, 최은경)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본 교안은 노동교육을 위한 보조 자료일 뿐이며, 교육을 진행하는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보완을 통해 계속 수정되어 가길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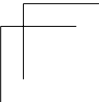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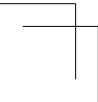
청년크.청년크

노동교육

프로젝트

CONTENTS

들어가는 말 청소년 노동교육을 시작하며	07
총론 청소년 노동교육,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10
1강 노동과 노동자	21
2강 노동자와 임금	39
3강 노동소외와 학습소외	65
4강 권리확산과 공공성	101
5강 노동조합 들여다보기	123



청소년 노동교육을 시작하며

[1]

왜 지금 노동교육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상징적 구호가 아니라, 절절한 분노이고 기본적인 생존권의 요구이다. 역사적으로 인권의식은 자유권에서 사회권, 연대권으로 확대 발달하고 있다. 1세대 인권이라 하는 [자유권]은 간섭 받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지킬 자유이며, 시민적 권리이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 등의 권리이다. 2세대 인권인 [사회권]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자유, 즉 노동권, 교육권, 의식주와 의료 등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이다. 3세대 인권인 [연대권]은 집단이 함께 누리는 권리이다. 평화권,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의 연대권이다.

그래서 생태/인권/평화/노동교육은, 결국 모두 인권의 이야기이다. 노동교육은 자유권에 머문 인권의 이야기를 사회권과 연대권으로 확장시키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노동교육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단결과 연대에 대한 교육이어야 한다. 개인 노동자의 자유권으로 시작하여, 노동자의 단결로 확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교육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이야기이다. 노동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인권을 위해, 단결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2]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노동교육은 단지 학생들에게 노동이 무엇인지, 노동자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는 노동지식을 학습시키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노동인권의 감수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노동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노동에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원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학생들이 앎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노동 감수성은 노동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태도이다. 즉, 노동 문제 상황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해야 할 행동을 알고 행동의 영향력과 책임성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인식 기반을 마련하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노동 전반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아래 5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순서	주제	내용
1	노동과 노동자	노동과 노동자의 개념, 편견, 노동자 찾기
2	노동자와 임금	임금, 임금 분배, 최저임금제, 살찐 고양이법(최고임금제)
3	노동소외와 학습소외	자본주의, 노동, 노동자, 임금노동, 소외(인간, 노동, 학습)
4	권리확산과 공공성	노동환경, 안전한 일터, 권리 확산, 공공성 강화
5	노동조합	87년 노동자 대투쟁, 노동 3권, 모의 단체 교섭

[3]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 ▶ 학생들의 삶에 가까운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노동자를 분리하지 않도록 한다.
- ▶ 사회적 이슈를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문제 해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 놀이, 체험, 매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청년·청소년 노동교육 표준교안

청소년 노동교육,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총론



01

- ❑ 몇년전만해도 노동교육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노동교육자료가 넘쳐 납니다.
- ❑ 수많은 자료와 강사들 속에서, 민주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우리가 하는 노동교육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 ❑ 청소년 노동교육은 자본주의 경쟁교육 속에서 성장하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학생인권과 노동인권교육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교육이란?

자본주의 경쟁교육속에서 성장하는
노동자 계급을 위한
학생인권과 노동인권 교육

인권과 협력의 삶을 파괴하는 학교/교실 시스템 점검하기

- 1 경쟁, 평가 등의 활동 중 학생들의 정서 개인화되지는 않는가?
 P.12 ~ P.13
 P.12 ~ P.13
- 2 학습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집중되지는 않는가?
 P.12 ~ P.13
 P.12 ~ P.13
- 3 학교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가?
 P.12 ~ P.13
 P.12 ~ P.13
- 4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지식이 곧 권력으로 작동하지는 않는가?
 P.12 ~ P.13
 P.12 ~ P.13
- 5 모든 활동에서 단계와 절차를 가지도록 요구하지는 않는가?
 P.12 ~ P.13
 P.12 ~ P.13
- 6 모두에게, 언제나, 질서가 요구되지는 않는가?
 P.12 ~ P.13
 P.12 ~ P.13
- 7 모든 학생의 감정과 신체, 생활태도 등이 동일해지도록 통제하지는 않는가?
 P.12 ~ P.13
 P.12 ~ P.13

인권이 존 중 되는 평화로운 교실 10월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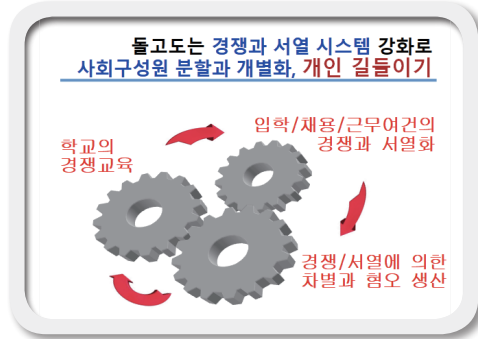
02

- ❑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와 함께 생태-인권-평화-노동의 가치를 교육합니다.
- ❑ 그러나 학습 내용은 수업시간에만, 교과서와 시험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뿐, 학생들의 삶에 내면화되지 못합니다.

- ❑ 잠재적교육과정 때문입니다. 학습내용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인권과 협력의 삶을 파괴하는 교육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계급적 노동교육도 가능합니다.

03

- 경쟁과 서열시스템에서 성장한 학생은 이후 노동자가 되어서도 경쟁과 서열에도 저항없이 순응합니다. 이러한 경쟁과 서열의 문화는 타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고, 이는 다시 학교의 경쟁교육을 더욱 강고하게 만듭니다.



- 이러한 순환과정에서 경쟁과 서열시스템은 전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철저히 분할하고 개별화시킵니다.

04

자신의 삶에 주체적인 인간

협력

교육적 목적이며,
발달을 위한 조건이자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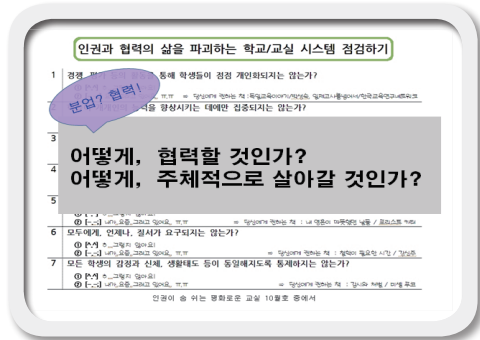
- 이러한 경쟁과 서열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 노동자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개별화시키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주체적인 인간, 협력하는 인간입니다.
- 노동교육은 노동 관련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넘어,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05

- ☑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 ☑ [무엇을!] 교육의 내용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교육 이어야 합니다.
- ☑ [어떻게!]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노동자 계급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론을 찾아야 합니다.

C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무엇을? 노동자를 위한 노동교육
어떻게? 노동자계급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법론



06

- ☑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 ☑ 우선 분업과 협력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둠활동을 진행한다고 해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그룹활동은 분업의 방식을 통해 오히려 타인에 대한 평가와 차별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 ☑ 과정과 관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교육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09

- ☑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노동교육은 노동인권교육이라고도 부릅니다.
- ☑ 노동인권교육의 1차적인 목표는 노동인권 감수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 노동인권감수성은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태도입니다.

노동인권 감수성은?

-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태도이다.
- 노동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을 노동인권관련 상황으로 민감하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기존 노동교육자료 분석의 기준

- 1.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2. 학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3. 노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4. 노동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10

- ☑ 새로운 노동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 기존자료의 분석은 교육에 대한 관점, 학생에 대한 관점, 노동에 대한 관점, 노동자에 대한 관점을 비교/검토하였으며, 또한 내용은 물론 삽화 등에서 차별적 표현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 자료는 PPT슬라이드 17 참조

11

✓ 기존 자료들의 검토 의견을 기본으로, 새로운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주의할 점과 대안을 정리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내용은 오른쪽의 PPT 슬라이드 본문 참조

▷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시려면, PPT슬라이드 17 참조

기존 자료 분석 총평	새로운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주의할 점과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인 예시는 주로 세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우수한 사례는 한국의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 노동자의 권리를 국내법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국내법의 한계에 걸려있다. ● 개인의 자유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회권과 이를 위한 참여권에 대해서는 내용 구성이 부족하다. ● 전반적으로 집결권이 개인의 자유권 수준의 1세대 인권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이라는 큰 틀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에 대한 문제를 희석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 대부분의 구성이 주어진 이야기를 듣고, 제시된 질문에 답하거나 토론하고,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 ILO 핵심협약 등 세계의 우수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과 참여권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 내 지역, 내 주변에서 직접 연대할 방법들을 찾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노동과 임금노동을 구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개념이나 사례에 대한 학습을 넘어, 학생의 구체적인 참여와 체험을 중심으로 한 수업방법이 고민되어야 한다. ▶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협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12

체크 1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

(ILO Declaration of Philadelphia, Declaration concerning the aims and purposes of ILO, 1946)

1 총회는 ILO가 근거하고 있는 기본 원칙들, 특히 다음 원칙들을 재선명한다.

-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b) 표면적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 c)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 d) 결핍과의 투쟁은 각국에서 불공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으로 수행돼야 한다.

✓ 노동교육 자료를 만들 내용구성에 앞서, 주의해야 할 것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먼저, [노동]은 무엇인가입니다.

✓ 체크1] ILO의 필라델피아 선언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13

☑ **[노동자]** 누가 노동자인지, 누가 결사의 자유를 갖는지 교사부터 정확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 실정법에 관한 노동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의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습니다.

☑ **[체크2]**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 고용관계 존재 여부에 기초하지 않는다... 종종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자들도 단결권을 누려야 합니다.

체크 2 누가 노동자인가? 누가 결사의 자유를 갖는가?


ILO 협약의 광점 : 단서-예외조항이 거의 없다

ILO 기본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협약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른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 진정사건 처리절차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행정 해설집(2006) "결사의 자유 원칙에 의해 군인과 경찰만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는 스스로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그런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권리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 존재 여부에 기초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농업노동자, 일반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s), 자유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종종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자들도 단결권을 누려야 한다." (para. 254)

- 조광현 한국의 노동법이나 공직위원 의견서에 등장하는 각종 단서 예외조항이 거의 없다
-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달하는 한국의 특수고용은 물론이고 일반 자영업자나 자유직 종사자에게도 노동자로서 단결권 부여해야 한다는 것임.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은 매우 당연한 일종임.

14

체크 3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 '노동3권'



- 단결권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노사 동등한 지위를 갖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 등 쟁의를 할 수 있는 권리

☑ 다음은 **[노동3권]**입니다.

☑ ILO에는 노동3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결사의 자유' 하나입니다.

☑ 노동3권이라는 표현은 '결사의 자유'가 분리될 수 있는 것 같은 왜곡을 만듭니다. 일부만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결코 결사의 자유가 아닙니다.

☑ 노동3권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 노동기본권입니다. 온전한 노동기본권이 하나로 보장되어야 '결사의 자유'입니다.

15

- ☑ 한국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합니다.
- ☑ ILO협약에는 단서/예외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 ☑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조] 2. 국내법령은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사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1.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장사항을 군대 및 경찰에 적용하는 범위는 국내법령으로 정한다.

체크 4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근로자가 사용자 상대로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려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33조 1항]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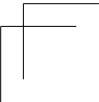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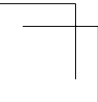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강

청년·청소년 노동교육 표준교안

노동과 노동자





이 노동과 노동자



목표 및 내용

학습 목표



1. 노동과 노동자의 의미를 안다.
2.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 고민한다.
3. 우리 주변에 수많은 노동자가 존재하며 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4.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의 입장(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기른다.

학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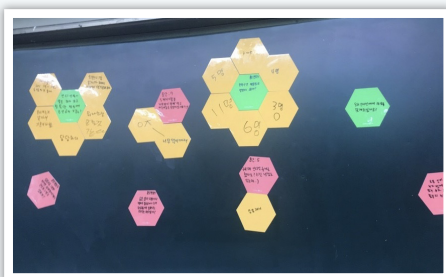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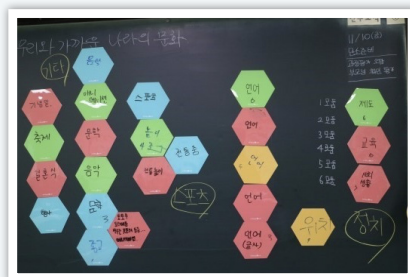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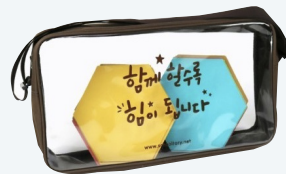


1. 노동과 노동자의 개념, 편견
2. 노동자 찾기
3.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준비물



- PPT자료, 활동지, 보드마카, 허니컴보드



수업 흐름



수업 시나리오

열기 (20분)

💡 노동이란?

▶ 다음 중 노동이 아닌 것은

-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고 사진의 모습이 노동인지, 아닌지 한 번 맞춰봅시다.
- 첫번째 사진은 공장으로 보이지요? 공장에서 뭔가를 조립하고, 만드는 행위는 노동인가요?
- 사무실인 것 같네요. 사무작업을 하는 행위는 노동인가요?
- 다음 사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 행위는 노동인가요?
- 어디인 것 같습니까?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노동일까요?
- 이 사진은 어디인가요? 학교, 강의실입니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을 볼까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가르치는 행위는 노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이 사진은 어떤 행위를 나타낸 걸까요? 맞아요, 집안일이죠. 집안일은 노동일까요?
- 마지막으로, 어떤 사진인가요? 공부를 하는 이 행위는 노동일까요?
- 노동이 아니라고 한 친구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들어볼까요?
(다른 것들은 직업인데 집안일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일은 노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집안일이나 공부하는 돈을 받지 않아요 등의 답변)
※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익숙하게 한다.



▶ 노동이란 무엇일까?

- 노동은 정리해보자면 노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나 문화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 그 중 좁은 의미의 노동은 필요한 물자를 얻는다. 즉,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직업이나 돈과 관련된 노동은 바로 이 좁은 의미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서 살펴본 이 모든 행위를 다 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노동이란?

▶ 노동이란 무엇일까?

노동

-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나 문화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만드는 일
-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



노동의 의미

- 노동의 사전적 의미 :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행위
- 넓은 의미 : 사람이 생존, 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
 - 특정한 대상 : 자연, 사람, 기계, 사물
 - 공부, 게임, 유튜브 검색 포함
- 경제학, 사회학적 의미 : 사회유지에 필요한 생산 활동. 무엇인가를 만들어 낸다는 생산 활동만 노동, 예술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결론 :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나 문화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만드는 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노동

▶ 노동자란 누구일까?

- 그렇다면 노동자는 누구일까요? 노동자는 급여 또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 직종과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노동자입니다.
- 그렇다면 이 사진에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도 노동자라고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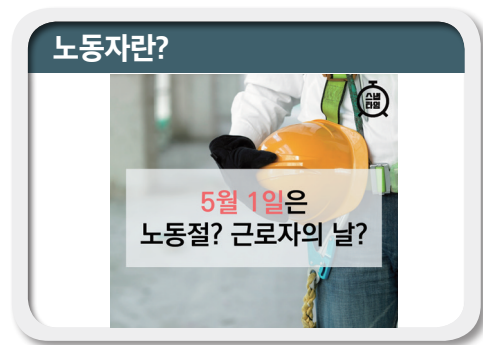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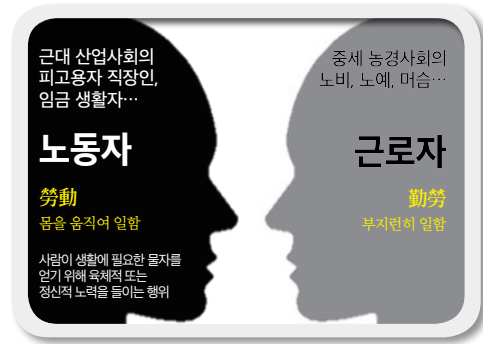
▶ 노동자란 무엇일까?

노동자

- 급여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
- 직종과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

▶ 노동자와 근로자

-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려니 어색하지요? 평소 우리는 근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 사실 근로자라는 말은 조선 시대부터 사용하던 말입니다. 노동자는 근대에 들어와서야 등장하는 말입니다.
- 중세에도 근로자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노비, 노예, 머슴 등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제대로 된 보수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 노동자라는 말은 근대 산업사회에 등장한 피고용자, 직장인, 임금 생활자를 칭하는 말입니다. 노동력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했죠.
- 노동자라는 단어에는 일할 노, 움직일 동 자를 사용합니다. 문자 그대로 몸을 움직여 일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 근로자라는 말은 부지런할 근 자를 사용하여 부지런히 일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왠지 평범하게 일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단어는 과거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 노동자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그리고 독재정권 시절,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 헌법에 나와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 펼치기 (40분)

💡 보이지 않은 노동자 찾기

▶ 초콜릿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노동자들을 거쳐왔을까?

- 선생님이 초콜릿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초콜릿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노동자를 거쳐왔을까요? 모둠별로 찾아 활동지에 적어봅시다.



- 초콜릿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노동이 필요할까요? 그것과 관련된 노동자를 찾아서 적어봅시다.

-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어떤 노동자들이 있을까요?

(카카오 농장 노동자, 카카오 분류 노동자, 초콜릿 포장 노동자, 택배 노동자, 마트 노동자 등등)

- 우리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얻게 되기까지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 다양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이름을 붙여봅시다.

※ 어색하더라도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우리 주변의 노동자 찾기

▶ 나는 어떤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일까요?

-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봅시다.

-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화면의 마크들은 노동조합의 마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의 조합이 존재하죠. 어떤 노동자의 조합인지 한 번 맞춰봅시다.





언론인들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언론노조의 다양한 지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방송사 지부들이 있죠? 의료인들도 노조가 있습니다.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마무리 (20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 여러분 학습지에 나와있는 교과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사회 시간에 공부하는 교과서입니다. 6학년 사회는 국정교과서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6학년 학생들은 이 책으로,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 공부해요. 6·25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다들 알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10년 단위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줄테니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지 찾아봅시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2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6·25 전쟁 이후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산업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국민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서진하기 위해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농업 생산의 산업 구조를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직육면체 공업, 섬유 공업 등 소기업 중심이 주로 발전했습니다.

1960년에 정치는 **6·25 전쟁 3년째** 재건을 재우고 국민에게 생활안정 계획을 제시하고 수출을 통해 성장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이후 정부는 기업의 재능을 발휘하고 원천에 유망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육성 제도, 발달 등을 통해 국민생활도 또한 재흥을 수놓는 것부터 재정을 재해 주고, 기업에 따라 다양한 재정을 설계 수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 어떤 단어들에 반복되고 있죠? 기업과, 정부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거나 빠진 느낌은 들지 않나요? 누가 빠졌나요?
- 맞아요. 우리가 앞서 열심히 찾아보았던 노동자들이 빠져있습니다. 이 시절에는 노동자들이 없었을까요?
-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했지만 교과서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빠져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습니다. 그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 1970, 80년대 '산업역군'이라고 불리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 한 채 공장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설 새 없이 재봉틀을 돌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13살, 15살의 어린아들도 있었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노동자의 이야기보다 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에 더 주목하지는 않았나요?
-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본다면 어떨까요? 활동지에서 바꾸고 싶은 문장이나 문단을 골라 바꿔봅시다.

노동과 노동자

학번 _____

이름 _____



보이지 않는 노동자 찾기

초콜릿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떤 노동자들을 거쳐왔을까?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	어떤 노동이 필요할까?	어떤 노동자들이 있을까?
--------------	--------------	---------------

우리 주변의 노동자 찾기

다음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노동조합들의 마크입니다.
어떤 노동조합인지 맞춰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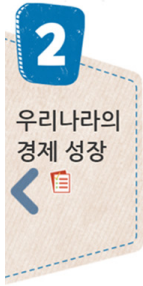
--	--	--	--



--	--	--	--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바꾸고 싶은 문장이나 문단을 골라 우리의 입장을 넣어 교과서를 바꿔봅시다.



2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6·25 전쟁 이후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산업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국토 전체가 폐허로 변했다. 파괴된 여러 시설을 복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모았다. 1950년대에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이 시기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식료품 공업, 섬유 공업 등 소비재 산업이 주로 발전했다.

1962년에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이후 정부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운반해 수출할 수 있도록 정유 시설, 발전소, 고속 국도, 항만 등을 많이 건설했다. 또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세금을 내려 주고, 기업이 여러 나라에 다양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업은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에 따라 섬유, 신발, 가발, 의류 등과 같은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며 성장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자원과 기술은 부족했지만 노동력은 풍부했다. 따라서 기업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해 수출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가계의 소득도 점점 증가했다.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 모습을 알아봅시다

1973년에 정부는 국가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중화학 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철강, 석유 화학, 기계, 조선, 전자 등의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다.

노동과 노동자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신규조합원 교육](#)
e <https://youtu.be/eqA-82FJvEg>

- [\[팩트체크\] 노동과 근로... '근로'는 일제·군사시대 용어?](#)
e <https://youtu.be/dJTawvM9cys>

- [일하는 당신, 노동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e <https://youtu.be/dgldVfEpt6c>

- [\[#국공노가 알려주는 노동이야기\] 3강 '근로자'와 '노동자'](#)
e <https://youtu.be/p0Izbl8mh0k>

- [인물을 말하다. 전태일편](#)
e https://www.youtube.com/watch?v=18Rnx_quJ4Q

- [지식채널e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 + 마중](#)
e <https://www.youtube.com/watch?v=T9075ZklvBI>

- [\[전태일열사 50주기\] 미래에 보내는 편지](#)
e <https://youtu.be/7P5G0QMbsoE>

- [노동자의 이름으로! '전태일 분신' | 큰별쌤의 오늘](#)
e <https://youtu.be/feKJvY4HD-8>

- [읽기자료](#)
 (출처: 초등노동교육, 첫걸음(제19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 월별로 모아본 노동교육)
e https://chamsil.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sil_8_10&wr_id=202409&sca=19%ED%9A%8C&menu_id=40d0

• 전태일의 생애와 활동

e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68917>

전태일은 서울에서 아버지에게 배운 재봉 기술로 청계천 평화시장의 한 의류 공장에 보조로 취업했다. 그는 하루 14시간씩 노동을 하며 일당으로 당시 차 한 잔 값이던 50원을 받았다.

다음 해 미싱사로 옮겨 재봉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린 여공들이 적은 월급과 열악한 환경,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함께 일하던 한 여공이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인한 직업병인 폐렴으로 강제 해고되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 역시 여공을 도왔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그는 그 후 재단사 보조로 취직했고 재단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마침내 재단사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재단사가 되었어도 그의 어려운 형편은 여전했다. 1967년 3월 17일의 일기에서는 당시 노동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정말 하루하루가 못 견디게 괴로움의 연속이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칼질과 다리미질을 하며 지내야 하는 괴로움, 허리가 결리고 손바닥이 부르터 피가 나고, 손목과 다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아프니 정말 죽고 싶다. ... 육체적 고통이 나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없어도 좋겠다. 미싱 6대에 시다가 6명, 다른 집 같으면 재단사,

보조, 시다 3명이 해야 할 일을 나 혼자 하니 정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인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뒤 해설서를 구입해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근로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전태일은 종종 어린 보조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밤늦도록 혼자서 보조가 해야 할 일을 해 주곤 했는데 이것을 여러 번 업주에게 들켜 해고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1969년 6월 평화시장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현재 근로 조건의 부당성을 알리고 설문을 통해 근로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일은 업주들의 방해로 실패했고 전태일은 더 이상 평화시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한동안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지냈다.

1970년 9월 전태일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평화시장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화시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재단사로 일하며 이전의 바보회를 발전시킨 ‘삼동친목회’를 조직했다. 그는 틈나는 대로 서울시청, 노동청 등을 찾아다니며 진정서를 내고 신문기자들을 만나거나 방송국을 찾아갔다. 좀 더 자료가 많다면 방송을 고려해 보겠다는 방송국 관계자의 말



에 그는 노동 실태 조사 설문지를 돌려 126장의 설문지와 90명의 서명을 받아 1970년 10월 6일 노동청장 앞으로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개선 진정서>를 제출했다.

마침내 이 내용이 다음 날 석간신문인 <경향신문>에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라는 표제로 사회면 톱기사로 실렸다. 전태일 등 삼동회 회원들은 본격적으로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의 개선과 노동조합 결성 등을 위해 사업주 대표들과 협의를 벌였다. 삼동회를 주축으로 재단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자 사측과 정부에서는 안절부절 못했다. 업주들은 삼동회를 사회주의 조직으로 매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러나 당시 신민당의 김대중이 국정 전반에 걸쳐 비판의 소리를 높여가고 있던 시절이라 박정희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 사회 여론을 살피던 때였다. 만약 노동자들의 참상이 언론에 계속 보도된다면 대통령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뻔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무마하기 위해 노동청에서는 뒤늦게 실태 조사를 하겠다며 전태일 등에게 '노동절에 포상하겠다'라거나 '모범청년'이라며 희유하려고 들었다. 결국 노동청에서 해고된 재단사들의 취직을 모두 보장하고 일주일 안에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회원들은 모두 취직했고 전태일도 재단사 보조로 취직했다. 그러나 근로

조건은 개선되지 않았다.

전태일과 삼동회 회원들은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임을 고발하는 뜻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갖기로 결의했다. 결행일은 11월 13일이었다.

11월 13일, 평화시장 일대는 경찰들이 삼엄하게 진을 치고 있었고 업주들은 종업원에게 "오늘 행사에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내렸다. 삼동회 회원들은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업주와 경찰들이 현수막을 빼앗는 등 시위를 진압하려 하자 전태일은 온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시장 앞을 달렸다.

뒤늦게 도착한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했다. 약 3분가량 전태일의 몸이 불탔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뜻밖의 상황에 당황해 불을 끌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 소식을 듣고 공장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달려 나와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전태일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렇다 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신이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이루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스물두 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전태일의 죽음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도 노동자들의 정신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박정희에게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전태일의 편지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육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의류)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서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혁명 후 오늘날까지 저들은 각하께서 이루신 모든 살제를 높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깊이깊이 존경할 겁니다. 삼선개헌에 관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는 참으로 깊은 희망을 각하께서 마참내 행하심을 머리 숙여 은미합니다. 끝까지 인내와 현명하신 용기는 또 한 번 밝아오는 대한민국의 무거운 십자가를 국민들은 존경과 신뢰로 각하께 드릴 것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2통 5번에 거주하는 22살 된 청년입니다. 직업은 의류계통의 재단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새내동대문구 평화시장으로써 의류전문 계통으로써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것으로 종업원은 2만여 명이 됩니다. 큰 맘모스 건물 4층에 분류되어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주가 여러분인 것이 문제입니다만 한 공장에 평균 30여명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기업체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 명을 넘는 종업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기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써 어떻게 여자에게 하루 15시간의 작업을 강요합니까? 미성사의 노동자라면 모든 노동 중에서 제일 힘든(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여성들은 견타지지 못합니다.

또한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사다공들은 평균연령 15세의 어린이들으로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겨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하루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각하게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착하디 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을 좀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근로기준법에선 동심들의 보호를 성문화하셨지만 왜 자카지를 못합니까? 발전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의 공통된 형태이겠지만 이 동심들이 자라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나라의 법인 것을 잘 압니다. 우리들의 현실에 적당하게 만든 것이 곧 우리 법입니다.

잘 맞지 않을 때에는 맞게 입하려고 노력을 하여야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기업주들은 어떠한가? 마치 무슨 사치한 사치품인양, 종업원들에게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식입니다.

저는 피 끓는 청년으로써 이런 현실에 종사하는 재단사로서 도저히 참혹한 현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의 좁은 생각 끝에 이런 사실을 고치기 위하여 보호기관인 노동청과 시청 내에 있는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구두로써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슬테조사도 왔었습니다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1개월에 첫 주와 삼 주 2일을 씁니다.

이런 휴식으로써 아무리 경찰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 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일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사타공들은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또한 평균 20세의 숙련 여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서 대부분이 햇빛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도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 입니다. 응당 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한 공장의 30여 명 직공 중에서 겨우 2명이나 3명 정도를 평화시장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인당 3백 원의 진단료를 기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부가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슬타입니까?

하루 속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한 여공들을 보호하십시오. 최소한 당사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할 순진한 동심들입니다. 각하께선 쿡부입니다. 곧 저희들의 아버님입니다. 소자된 도리로서 아픈 곳을 알려 드립니다. 소자의 아픈 곳을 고쳐 주십시오. 아픈 곳을 알려지도 않고 아버님을 원망한다면 도리에 틀린 일입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월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월 10시간 -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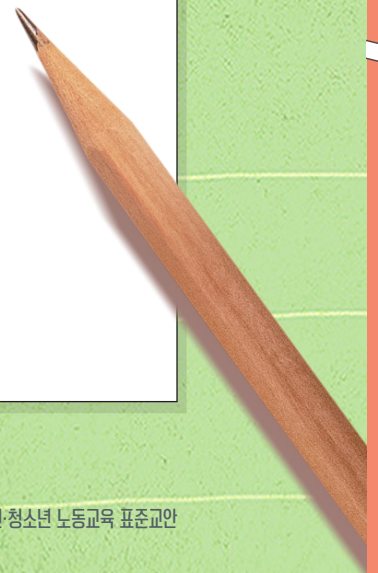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타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 이상 인상하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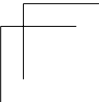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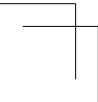


청년·청소년 노동교육 표준교안

노동자와 임금

2강





02 노동자와 임금



목표 및 내용

학습 목표



1. 노동자 임금의 분배 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2. 임금의 의미와 임금 격차에 대해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노동자의 임금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 고민한다.
3. 연대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한 생활 임금을 위한 노조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학습 내용



1. 임금 분배의 불평등한 구조
2. 불평등한 구조 체험
3. 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안

준비물



- ppt / 학습지, 필기구 / 계산기(필요시) / 색지, 매직 등(필요시)

수업 흐름



수업 시나리오

열기 (20분)

💡 떡볶이 가게 이야기

▶ 맛나 떡볶이 가게 > 맛나떡볶이 회사

맛나 떡볶이 가게

은수씨는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며 떡볶이를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판매와 서빙, 계산, 재료 손질 등은 물론 은수씨가 모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Q. 떡볶이 가게에서 한 달에 순이익 2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할 때, 은수 씨는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 점점.. 손님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맛나 떡볶이 가게 - 은수씨의 고민...



맛나 떡볶이 회사

은수(사장): 비법 소스 만들기, 직원 관리, 임금 계산
태희: 재료 손질, 떡볶이, 순대, 튀김 등 요리 전반
지율: 떡볶이 서빙, 계산, 테이블 정리 및 청소
도경(알바): 떡볶이 서빙, 계산, 테이블 정리 및 청소
유빈: 요리 원재료 구매, 손익계산, 광고 및 홍보하기

다섯명 모두 매일 쉴 틈 없이 고생하여 일한 결과 순 이익 월 30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떡볶이 집은 슬슬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손님이 점차 늘어나면서
해야 할 일도 매우 많아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새로 고용할 정도였습니다.

맛나 떡볶이 가게 - 은수씨의 고민...

은수씨는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떡볶이집 운영에 고민을 하던 중,
적당히 맵고 적당히 달면서 감칠맛이 있는 비법소스와 단짠단짠의 미각을 자극하는 요리법을 발견했고, 주변에 떡볶이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모두 꼭 필요한 일을 하긴 했지만, 서로 다른 일을 했습니다.

월급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은수(사장): 비법 소스 만들기, 직원 관리, 임금 계산
태희: 재료 손질, 떡볶이, 순대, 튀김 등 요리 전반
지율: 떡볶이 서빙, 계산, 테이블 정리 및 청소
도경(알바): 떡볶이 서빙, 계산, 테이블 정리 및 청소
유빈: 요리 원재료 구매, 손익계산, 광고 및 홍보하기

Q. 임금 3천만원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게 공정할까요?



▶ 누가 임금을 얼마나 받아야 공정한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모둠별로 기준에 따라 정한 월급(공정하게!)

	은수	태희	지율	도경	유빈	합계
1모둠						3,000
2모둠						3,000
3모둠						3,000
4모둠						3,000
5모둠						3,000



- ▶ 학급 학생 중 활발한 학생을 미리 담임교사에게 물어 이름을 넣으면 더 재미있음.
- ▶ 임금을 정할 때에는 ‘공정’을 강조하며, 반드시 ‘공정’한 구체적 기준을 먼저 정하도록 함.
(예: 사장이니까 많이준다X -> 회사를 창시했으니까, 또는 비법소스를 개발했으니까 많이준다O)
- ▶ 지율이와 도경이의 임금을 통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의미를 잠깐 논의하고 넘어갈 수 있음. 더 자세히 들어가고 싶다면 ppt 마지막 부분 보충자료 참고. (ppt47-64면)
- ▶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맛나떡볶이를 5인 이하 영업장처럼 예시를 들었으나 대기업처럼 생각할 것. 만약 소상공인에 대한 반감이 우려된다면 떡볶이 공장으로 ‘영업팀’, ‘개발팀’ 등 팀으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음.

현실의 임금 격차 살펴보기

- ▶ 맛나떡볶이 대기업이 있다면 임금의 격차는 어느정도일까?
- ▶ 현실의 임금 격차는 공정한가?
- ▶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최저임금을 올린다.
 - 최고임금 상한선을 정한다.
 - 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

현실의 맛나떡볶이 회사: 임금의 격차

	30개 대기업 CEO	30개 대기업 일반 직원	2019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	29억 7천 700만원	9천 800만원	2천 94만원
월급	2억 4천 808만원	816만원	174만원



- ▶ ‘임금 격차는 없어야 한다’가 아니라, ‘임금의 격차가 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나와야 하는가’에 초점.
- ▶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학생들이 직접 생각할 수 있도록 함.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

- ▶ 여러분은 성인이 되어 서울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시급 9,160원(2022년 최저임금 기준)을 받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현재의 시급으로 한 달을 살아보자.

▶ 시급 9,160원으로 잘 살 수 있었는가?

<p>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주거비</p>  <p>월세 60, 관리비 5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 관리비 5만원 (보증금 500만원)</p>	<p>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교통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버스, 도보 이용 집과 일터 이외에는 거의 가지 않는다. 지하철이 끊기기 전에 늘 집에 들어간다. <p>한달 약 3만원 한달 약 6만원</p>										
<p>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식비</p>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 씨리얼 혹은 굽기 점심: 편의점, 간단 도시락 저녁: 편의점 도시락 또는 해먹기, 모임 안감 간식 거의 없음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 간단한 빵, 씨리얼 점심: 편의점, 간단 도시락 저녁: 편의점이나 식당, 해먹기, 가끔 친구와 약속 커피나 음료, 과자 </td> </tr> </table> <p>한달 약 40만원 한달 약 6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 씨리얼 혹은 굽기 점심: 편의점, 간단 도시락 저녁: 편의점 도시락 또는 해먹기, 모임 안감 간식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 간단한 빵, 씨리얼 점심: 편의점, 간단 도시락 저녁: 편의점이나 식당, 해먹기, 가끔 친구와 약속 커피나 음료, 과자 	<p>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등록금</p> <p>2020년 연평균 대학 등록금</p>  <p>홍익대학: 6,716.5 천원 진문대학: 5,809.8 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 씨리얼 혹은 굽기 점심: 편의점, 간단 도시락 저녁: 편의점 도시락 또는 해먹기, 모임 안감 간식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 간단한 빵, 씨리얼 점심: 편의점, 간단 도시락 저녁: 편의점이나 식당, 해먹기, 가끔 친구와 약속 커피나 음료, 과자 										
<p>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통신비</p> <table border="1"> <tr> <td>휴대폰 요금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TE 데이터 100GB: 약 70,000원 LTE 데이터 6GB: 약 50,000원 </td> </tr> <tr> <td>TV 요금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5채널: 약 15,000원 56채널: 약 6,000원 </td> </tr> <tr> <td>인터넷 요금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가 인터넷: 약 30,000원 2.5기가 인터넷: 약 45,000원 </td> </tr> </table>	휴대폰 요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TE 데이터 100GB: 약 70,000원 LTE 데이터 6GB: 약 50,000원 	TV 요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5채널: 약 15,000원 56채널: 약 6,000원 	인터넷 요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가 인터넷: 약 30,000원 2.5기가 인터넷: 약 45,000원 	<p>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학원</p> <p>Q 직장 Q 자기계발 지출비용과 할애 시간은?</p> <p>부족한! 있을 때 공부만 31.9%</p> <table border="1"> <tr> <td>자기계발 비용</td> <td>자기계발 시간</td> </tr> <tr> <td>월평균 17만1000원</td> <td>일주일 평균 4시간48분</td> </tr> </table> <p>dizzo.com</p>	자기계발 비용	자기계발 시간	월평균 17만1000원	일주일 평균 4시간48분
휴대폰 요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TE 데이터 100GB: 약 70,000원 LTE 데이터 6GB: 약 50,000원 										
TV 요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5채널: 약 15,000원 56채널: 약 6,000원 										
인터넷 요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가 인터넷: 약 30,000원 2.5기가 인터넷: 약 45,000원 										
자기계발 비용	자기계발 시간										
월평균 17만1000원	일주일 평균 4시간48분										

- ▶ 만약 내가 실제로 시급 9,160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포기하게 될까?
- 저축(미래), 필요한 공부, 문화 생활, 취미,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은 것 등
- ▶ 이러한 삶은 만족스러운 삶일까? 일자리에서 해고된다면 다음날부터 어떻게 될까?
- ▶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 ▶ 선택지 중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절약한 상태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면 더욱 부당함을 느낄 수 있음.
- ▶ 일부 일을 많이 한 경우 임금이 남을 수도 있으나, 삶의 질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 ▶ 일해서 벌 수 있는 총액의 계산이 복잡하므로 학생별로 계산기를 미리 준비하거나 교사가 어려운 학생만 계산기로 계산해주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음.

💡 임금의 변화

▶ 최고임금법 논의와 살찐 고양이법

- 살찐 고양이법에 대한 만화 보기
- 최고임금법에 대한 영상 본 뒤 간단히 토의하기

격차를 줄이는 방안

- 1) 최저임금을 올린다
- 2) 최고임금 상한선을 정한다.
- 3) 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
(세금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살찐 고양이법



▶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나라?

-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보면서 연대의 필요성 느끼기

▶ 핀란드는 왜 최저임금이 없을까? 없어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노동 조합이 강하다.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을 한다.



▶ 살찐고양이법이나 최고임금법에 반대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논의 가능.

- 정책이나 의견에는 양면이 있음을 강조하여 공정한 시각을 유지함을 보여주면 더 신뢰가 갈 듯.

▶ 시간이 부족한 경우 살찐 고양이법은 교사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감.

- 최고 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올려줘야 한다는 논점.

▶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이유 기사에서 연대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강조.

 마무리

▶ 진정한 임금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일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진정한 임금을 찾아서

· 오늘 공부한 임금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 비유해봅시다.

임금이란 여야 한다.

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 홍길동 -



▶ 색지, 매직 등을 미리 준비해가서 학습지 대신 색지에 써서 칠판에 공유하는 것으로 해도 좋음.

맛있는 맛나 떡볶이

모름 _____

이름 _____

Q 맛나 떡볶이 회사에서 각자 임금을 얼마씩 가져가는 것이 공정할까요?

- 은수(사장) : 비법 소스 만들기, 직원 관리, 임금 계산
- 태희 : 재료 손질, 떡볶이, 순대, 튀김등 요리 전반
- 도경(알바) : 떡볶이 서빙, 계산, 테이블 정리 및 청소
- 지울 : 떡볶이 서빙, 계산, 테이블 정리 및 청소
- 유빈 : 요리 원재료 구매, 손익계산, 광고 및 홍보하기

기준 1.

기준 2.

기준 3.

은수	태희	도경	지울	유빈	합계
					3,000만원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여러분은 현재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살고 있는 20살 성인입니다. 시급 8,720원(2021년 기준)을 받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현재의 시급으로 한 달을 살아 봅시다.

주중(5일)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시간

주말에도 일한다.

주말(토, 일)에는 몇 시간 동안 일하나요?

() 시간

4번의 주말을 포함하여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총 몇 시간을 일하나요?

() 시간

주말에는 쉰다.

여러분은 한 달(4주) 동안 총 몇 시간 일하나요?

() 시간

한 달 동안 총 얼마를 벌 수 있나요?

() 시간

1.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번 돈에서 한 달을 살아봅시다.

<참고자료> 서울 자취 대학생 기준 한 달 생활비 목록

나의 총 수입 ()원		
항목	월평균 비용 (대략)	나의 지출
집세(월세)	약 60만원	
관리비	약 5만원	
교통비	약 6만원	
통신비(휴대폰, TV, 인터넷)	약 10만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약 6.5만원	
식비	약 60만원	
대학 등록금	약 50만원	
기타 교육비(학원, 책)	약 17만원	
의료비	약 3만원	
용돈(여가생활, 의류 구입비, 소모품 등)	(각자 정하기)	
저축	(각자 정하기)	
지출		

- 1) 최저임금 8,720원으로 한 달을 잘 살 수 있나요? 잘 살지 못했다면 그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 2) 만약 실제로 최저임금만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할 때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포기하게 될까요?

• **알바와 자영업자의 싸움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이 본질...
'갑'이 고통 분담하면 '최저임금 7530' 연락처 가능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3901.html

• **올과 올의 '4,000원 전쟁'...최저임금 놓고 절박한 목소리 S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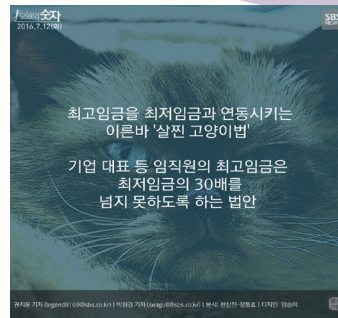
☎ <https://youtu.be/XnW1l9fxohc>

• **연봉액 제한 '살찐 고양이법', 현실 가능성은?**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62749

• **고용노동부 블로그 '최저임금 슬로건 공모 결과 발표'**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086346536



• **북유럽 국가들이 최저임금제 반대하는 이유**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1133810>

북유럽 국가들 "EU 최저임금제 반대

2020.01.13 17:45

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일괄 도입 땐 되레 임금 줄어"

고임금의 북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획일적 최저임금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냈다. 모든 EU 회원국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임금이 오히려 줄어 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선 끝나면 성큼 다가올 최저임금 1만원 시대..‘양날의 검’

<https://news.v.daum.net/v/20170508170300606?f=p>

‘최저임금 1만원’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굳이 공약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인상률을 유지할 경우 2023년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영세>중소사업자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앞서 한 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각 대선 후보에 전달한 바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주요 후보 공통 공약=8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0년까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22년까지(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차가 있긴 하지만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노동계의 기대심리는 높아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20년에 1만원까지 올리기 위해선 해마다 두 자릿수씩 올라야 한다. 공약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인상률이라면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엔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2001~2016년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8.6%다. 이 수준이라면 2022년 1만원에 육박(9770원)하고, 2023년 1만610원에 달한다. 이에 일부 후보의 공약은 사실상 현 수준 유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은 주요 노동 현안 중 하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342만명(2016년 기준)이 최저임금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수만 222만명(2015년 기준)에 달한다. 노동계는 평균임금 대비 한국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에 불과하다며 인상을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소득 불평등을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춘다.

◇최저임금 인상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신중론도 나와

하지만 재계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고용감나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주된 적용대상이 영세>중소기업인 만큼 또 다른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2%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86.6%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대기업보다는 중소>영세사업자에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미 상당수 중소>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15년 11.5%로 상승했다.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 1차적 문제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재계는 일단 인상보다는 최저임금제 안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아울러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고정상여금, 현물 급여 등은 그 성격상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선진국은 팁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영세사업을 하는 또 다른 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인상보다는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집 노동자에게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 :

최저임금 ▷생활임금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chaplin@catholic.ac.kr

I.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스위스가 ‘월 300만 원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국민투표(찬성 23%)를 실시해 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검색사이트 구글google에 ‘living wage(생활임금)’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약 352만개 나오며, ‘basic income(기본소득)’은 약 1,540만개, ‘minimum wage(최저임금)’는 약 3,630만개 정도가 검색된다. 이는 최저임금 등이 국가의 사회정책 차원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모두 100년 이상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제도들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의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 논의는 유사한 시장경제와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관심 사안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5달러(1만 7천 원)로 인상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영국도 최저임금을 9파운드(1만 5천 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1990년대 이후 생활임금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들이다.

우리나라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의 공식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정해진 상태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의 호응도 꽤나 높다. 그러나 생활임금은 일부 지자체에서만 도입됐고, 인지도도 최저임금만큼 높지는 않다. 2016년 5월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99.1%, 매우 잘 알고 있음 49.3%)”라고 답했다. 반면, 서울시의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 수준(49.9%, 매우 잘 알고 있음 8.3%)에 불과했다.

II. ‘시장임금’ 아닌 ‘사회적 임금’ 필요성과 논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여 년간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결합하여 이룬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성과는 과소평가될 수 없다. ILO나 EU는 저임금 해소 정책으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임금이나 기본소득 그리고 최저임금과 같은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의 비율이 취업자 수의 절반에 가깝고, OECD 국가 중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30.6%)가 가장 많으며, 저임금계층 비율(23.5%)은 두 번째로 높고, 임금 불평등(상>하위 10%의 임금 격차 5.63배)은 가장 심하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시급 7천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수는 39만 명(32.0%)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2016년 5월의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76.2%가 최저임금(2016년 시급 6,030원)에 대해 “낮다”고 답했고, 48%는 서울시 생활임금(2016년 시급 7,145원)에 대해 “낮다”고 응답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생활임금 논의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정부 주도로 시행된 정책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서 생활임금은 보통명사였다. 생활임금이 처음으로 시작된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논의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되었지만, 그 역사적 배경은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화 초기 저임금과 착취노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고,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영국은 1870년대 광산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과정에서 표면화되었고, 미국은 1886년 미국노동총연맹 AFL 설립 시기부터 생활임금을 강조했다.

그 후 생활임금운동은 최저임금운동을 대동시켰고 이후 두 운동은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연계되었다. 미국에서는 1912년부터 제정된 각 주별 최저임금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미국 노동자들의 의도와 달리 노동자 권리로서 생활임금을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했다. 때문에 1920년대를 지나면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연계는 약화되었고, 최저임금운동은 생활임금이 아니라 공정임금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생활임금은 더 이상 효과적인 담론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초기 노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생활임금보다는 최저임금이 주요 임금제도로 인식되었다.¹⁾

1) 한국노총은 출범 초기 강령(1962년)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수호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한다”(2항)라고만 명시했으나, 2015년 강령에서는 “완전고용과 생활임금의 확보, 노동시간의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3항)고 명시했다. 민주노총의 강령(1995~2015년)에는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5항)라고 명시되어 있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선언문(1990년)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임금 확보, 휴식과 문화생활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1항)을 명시한 바 있다.

경제적 변화에 따른 생활임금의 부각

생활임금이 20세기와 21세기를 지나오면서 다시 새롭게 부각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의 경제적 변화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소비자물가 수준을 넘었으며, 이는 3인 가족이 기초적인 생활(빈곤선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각국에서 점차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상승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근로빈곤 계층 working poor’이 증가하면서 법정최저임금과 생활임금 향상을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또한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들이 증가했고, 소득불평등이 고착화되면서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전 사회적으로 커졌다.

현재의 생활임금 논의는 199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지역 내 다양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을 운영하는 발티모리안BUILD이라는 커뮤니티 연합단체가 공무원노조ASCME와 연대하면서 사회운동의 한 형태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생활임금운동은 연방과 주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새로운 대안이라는 의미에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현재는 생활임금계산기Living Wage Calculator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 지역별 생활임금 상황과 수치를 공유하고 있다.

영국의 생활임금 논의는 2001년 런던에서 활동하는 시민, 종교, 이주, 노동단체 등이 참가한 런던 시티즌London Citizen이라는 연합단체가 미국 발티모리안과 자매단체가 되면서 본격화되었고, 버밍엄, 뉴캐슬, 카디프와 같은 지역에서도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2005년부터 런던시는 생활임금을 도입했고, 시 산하기구GLA에서 이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런던은 생활임금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런던 시티즌이 설립한 생활임금재단LWF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위원회LWC를 통해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생활임금 기업인증제, 생활임금 주간 지정 활동 등 생활임금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영국은 지난 4월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기준으로 57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부천시에서 2013년 12월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2014년 8월), 서울(2015년 2월) 등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임금이 이슈화된 것은 지난 2007~08년 노동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생활임금 캠페인을 벌이면서부터다. 이어 2012년 참여연대가 생활임금을 핵심과제로 선정했고, 이 시기에 한국노총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당시 시장 후보 박원순)와 2012년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과 노동복지 공약을 공동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임금을 첫 번째 실행과제로 제기하면서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Ⅲ.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사회적 형성과 특징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여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하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저임금 피고용인 보호제도다. 미국은 1938년, 프랑스는 1950년에 제도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은 각 나라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국가 기관이 조사>심의하여 결정하며 법률로 강제한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빈곤을 퇴치하고, 교섭력이 미약한 미숙련>미조직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정책적인 목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유효수요를 확대하고자 한다. 셋째, 산업정책적인 목적으로 저임금에 의존하는 산업과 기업의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 간 공정 경쟁을 유도(고성과작업장 구축)하려는 취지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를 더 강조하는 경영계의 목소리 때문에 최저임금은 매년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²⁾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경영계 측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리 때문에 최저임금 목표나 수준은 사실상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몇몇 지자체의 생활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일부 보수적 성향의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 문제를 이유로 생활임금 도입이나 확대에 난색을 표하기도 한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쟁점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쟁점은 무엇일까.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이 확인된다. 첫째,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즉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정도로 기본 욕구 실현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 decent wage’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향상시켜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낮은 최저임금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즉,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둘째,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보편적이지만,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공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2)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예산 책정의 근거나 가이드라인이 된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 청년 및 장애인 의무고용할당 과태료, 탈북이주민 정착금, 산업재해 및 교육훈련 등 정부가 사회정책을 시행하는 데 주요 준거가 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되어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의 여부가 생활임금에 거는 또 다른 기대일 것이다.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나라의 사례를 보면 한계도 있고, 각 나라별 상황과 맥락에 따른 차이나 공통점³⁾도 확인된다.

셋째,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그 사회의 안정과 빈곤 완화, 그리고 저임금 해소에 기여했는가? 또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 향상이나 소득불평등을 완화했는가?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혜율(영향율)이 185만 명(9.6%)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임금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의 수준이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정도, 그리고 1인 노동자가 아닌 가구원들이 생활을 유지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게다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0명 중 1명이 넘는다는 것 또한 문제다.

결국 오늘날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은 ‘우리 사회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라는 사회적 논쟁 주제이며, 생활임금은 시장 중심의 임금제도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불충분함에 대한 문제제기다. 최저임금이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임금이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생활임금운동이 정부가 보장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유발했고,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했다.

3) 첫째, 생활임금은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여 공공정책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제한적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생활임금은 국가가 결정한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가구 소득이 중앙 정부가 정하는 빈곤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생활임금제도는 적용대상이 지역 내 공공부문 사업장 종사자들이거나 준공공적 성격(대학, 병원 등)으로 한정되어 다소 제한적이다. 넷째, 생활임금제도는 대체로 집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기구(재단, 위원회, 기구, 회의체)가 지역사회에서 공공 거버넌스 형태로 형성>운영된다.

IV. 맺음말: 사회적 임금의 확장 필요성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나 생활임금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국가들은 노조조직률이 높고 사회 안전망이 잘 형성된 유럽식 조정된 시장경제CMEs 국가들이 아닌, 임금불평등이 심각한 영미식 자유시장경제LMEs 국가들이다. 과거 영미식 국가에서 생활임금이 논의된 이유는 국가와 사회의 힘의 균형이 자본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임금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되어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통해 “사회에서 어떤 특집, 우리 사회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 27임금이 필요한가?”라는 근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은 시장에 맡겨진 임금이 아니라, 지역 사회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임금이다. 또한 생활임금이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시장 결정적 임금제도의 사회적 재구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미국보다 생활임금 논의를 늦게 시작했지만, 현재 영국에서 1천개 이상의 사업장이 생활임금제에 참여하는 것은 제도의 확장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물론 핵심 쟁점은 남아있다.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이 인간다운 삶, 즉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just pay에 관한 것이다. 이 쟁점은 논의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그리고 기본소득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임금’ 지급으로,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제도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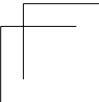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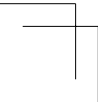
3강

청년·청소년 노동교육 표준교안

3-1. 노동소외

3-2. 학습·노동소외





03 3-1. 노동소외 3-2. 학습·노동소외



목표 및 내용

학습 목표



1. 미디어에 나타난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 노동소외 현상을 이해한다.
2. 학습노동자로서 위치를 자각하고 학교와 사회가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3. 노동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적 노동자로서의 삶을 자각한다.

학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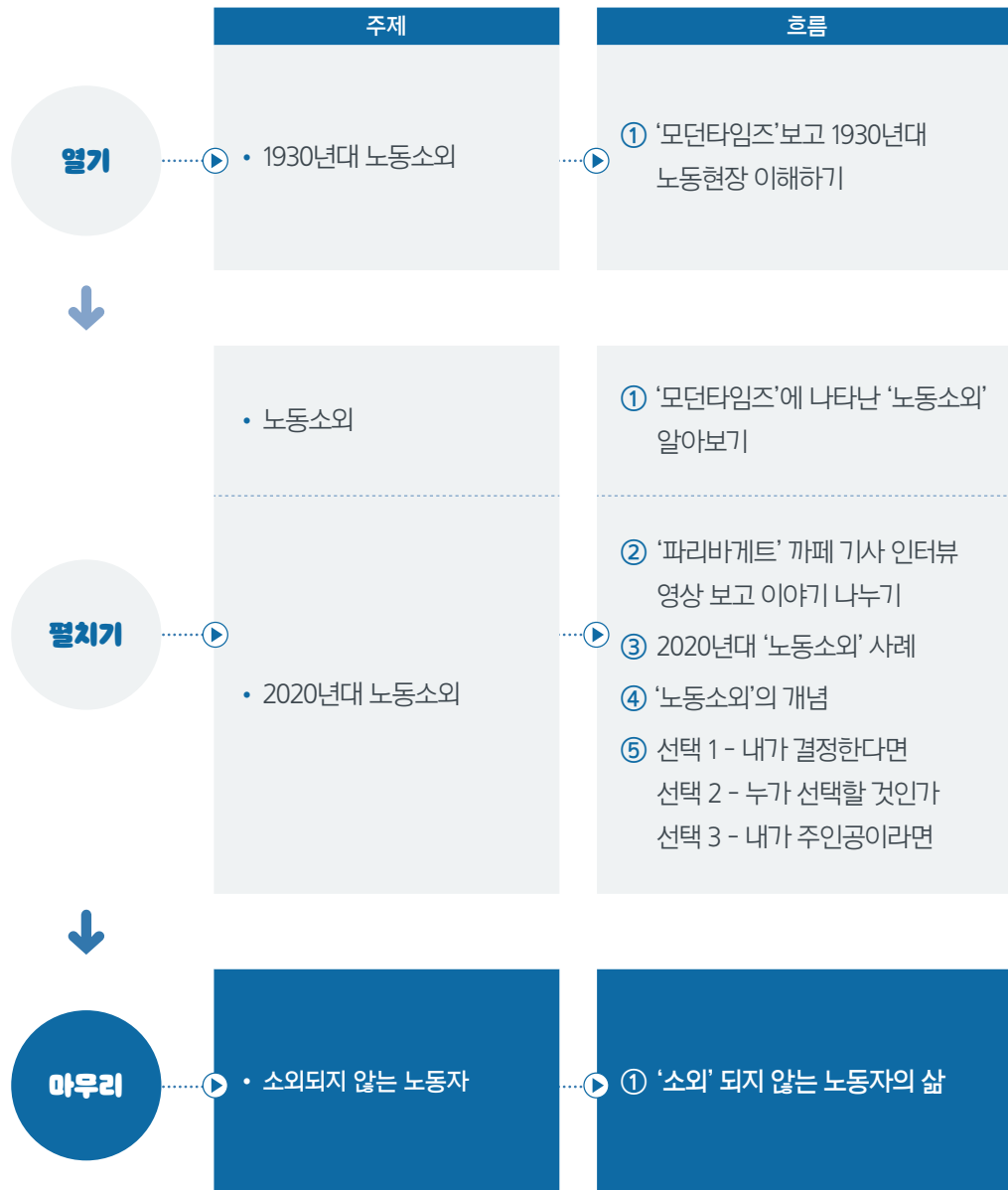
1. 인간에 의한 소외, 노동과정으로부터의 소외(창조적 행위의 박탈),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
2.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생들, 학교와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3. 자본주의, 노동, 노동자, 임금노동, 소외, 좋은 일자리

준비물



- 영화(모던 타임즈) 영상, ppt

3-1. 노동소외 수업 흐름



수업 시나리오

열기 (15분)

영화 '모던 타임즈' 영상보고 이야기 나누기

▶ 영화 정보 주기

- 영상(3강-1. 노동의 소외(모던타임즈+파리바게트) ppt 내)보기 전 영화에 대한 짧은 정보 주기



모던 타임즈 : 1936년 제작. 찰리 채플린의 무성 코미디 영화. 20세기 초반의 산업화, 경제 대공황 상황을 비판한 영화로 채플린은 공산주의자로 몰려 미국으로 쫓겨나게 됨. 주인공 떠돌이가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게 되면서 당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줌.

▶ 영화보기

- 지금 영상 1편을 보여줄 텐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모던 타임즈'입니다. 찰리채플린이라는 배우가 미국에서 만든 무성영화로 20세기 초반 1930년대 대규모 공장이 생기고 각자 농사를 짓거나 자기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로 일하게 되면서 생긴 일을 풍자한 영화입니다. '모던 타임즈'는 당시 노동자의 모습을 코믹스럽게 나타내었지만,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1편의 영화를 아주 짧게 부분부분 만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네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고 오늘은 노동자의 모습에 집중하여 함께 살펴봅시다.

▶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발표하기(3~4명 정도)

▶ 영상시청 후

- 혹시 기억나는 인상적인 장면, 궁금한 장면이 있나요?

앞에 나온 양떼는 왜 나왔어요? 등등

-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콧수염 달린 남자

- 주인공의 계급은 무엇일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빈민, 가난한 노숙인 등..

-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구체적인 영화장면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눠 봐요.

💡 영화 속 '노동 소외' 알아보기

▶ 장면이 의미하는 내용 이해하기

- 양떼들,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 자본 또는 지배적 힘으로부터 결정된 내용에 목표와 방향 없이 관습적으로 따르는 노동자
- CCTV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사장 : 자본으로부터의 인간존엄훼손.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 박탈
- 공장에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모습 : 기계에 의해 노동자의 동작과 시간이 결정. 단순하고 반복적 행위로 몸과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노동자. 수동적이고 순응적인 모습
- 주인공의 집 : 노동의 결과물을 소유할 수 없는 노동자. 빈곤의 악순환.
- 노동자 시위 : 노동자 단결, 연대, 협력을 통해 스스로 강해져서 권리쟁취



- 인간에 의한 인간 소외
- 노동과정으로부터의 소외
-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
- 노동자 단결을 통한 노동소외로부터의 해방



한마디

노동자와 자본가의 차이 간단히 설명하기. 노동자 구분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르나, 본 수업은 ILO구분에 따르기. 자본주의: 생산수단을 가진 소수의 자본가가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을 하여 이익을 얻는 경제 구조

▶ 생각해보기

- 주인공이 직접 계획하고 실천한 행동이 있는가?
-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노동행위는 가치 있는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직접적인 답을 듣기보다는 열린 질문하기



한마디

(1~4번 사진은 사진을 먼저 보여주기/ 5번은 질문 먼저하고 사진은 나중에 보여주기)
(교사 발문 및 내용 위주로 서술함. 수업 중 학생들의 의견 및 질문을 자유롭게 주고 받기)

1 노동시간

(사진 1) 양떼, 출근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이는가?, 공통점은 무엇인가?

-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모습,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양 떼와 사람들

그들은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가?

- 노동 시간을 통제당하고 있는 모습

1930년대



어떻게 보이는가?



공통점은 무엇인가?

2 노동통제

(사진 2) CCTV로 감시하는 사장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CCTV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장

그들의 노동은 존중받고 있는가?

- 노동을 감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

1930년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3 분업화

(사진 3)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는 모습

노동 과정을 누가 정하고 있는가?

- 기계에 의해 노동자의 동작과 시간이 결정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 단순하고 반복적 행위로 몸과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노동자
- 동료의 이상행동에도 기계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노동자

그들의 노동과정(일하는 방법, 속도 등)을 조정할 수 있는가?

- 노동의 과정으로부터 소외된 모습

1930년대



노동과정을 누가 정하고 있는가?

4 분배의 불평등

(사진 4) 낡은 오두막

누구의 집일까? 왜 가난할까?

- 낡고 허름한 오두막, 노동자의 집,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들은 일한 만큼 가질 수 있는가?

- 노동의 결과물을 소유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모습. 빈곤의 악순환

1930년대



누구의 집일까? 왜 가난할까?

5 단결, 연대

(사진 5) 노동자 시위 장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 함께 모이기, 단결하여 권리 쟁취

2020년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 2020년대 ‘노동 소외’ 사례 알아보기

▶ 영상보기

- 그러면 현재 노동현장은 좀 좋아졌을까요?
2020년대 실제 노동 현장을 보고 현재 노동자들은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영상은 ‘파리바게트 노동자’ 인 카페기사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영상을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봅시다.



▶ 파리바게트 카페 기사 영상에 나타난 문제 이해하기

- 카페기사의 노동은 존중받고 있나요?
-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나요?
- 초과로 작업한 후에 수당을 정당하게 받았나요?
-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1~4번 사진은 사진을 먼저 보여주기/ 5번은 질문 먼저하고 사진은 나중에 보여주기)
(교사 발문 및 내용 위주로 서술함. 수업 중 학생들의 의견 및 질문을 자유롭게 주고 받기)

1 노동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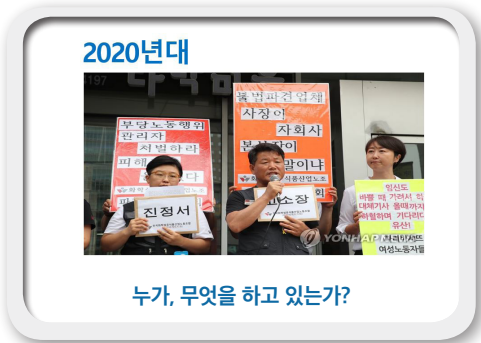
(사진 1) 진정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노동자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고소하고 있는가?

-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처벌, 불법파견업체, 임신 중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 노동자

우리의 노동은 존중받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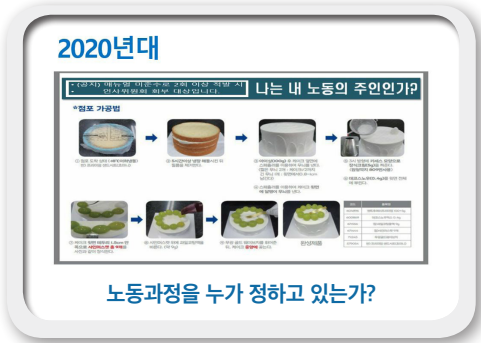
2 노동통제

(사진 2) 파리바게트 케익 제조법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케익의 모양, 재료의 각도, 양까지 통제하고 미준수시 처벌한다는 회사측

우리의 노동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가?



3 분배의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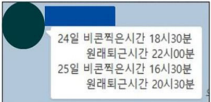
(사진 3) 초과근무시간 조작

노동시간을 왜 조작한걸까?

-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해서 초과수당 착취

우리는 일한 만큼 가질 수 있는가?

2020년대
크리스마스 52시간 초과 유령노동2



24일, 25일 케이크 과생산으로 연장근무가 발생하자 52시간 딱 맞춰서 퇴근을 찍으라고 지시.
초과분에 대해 알아서 계산하여 점주에게 직접 청구하라 함.

비정규노동자

노동시간을 왜 조작한걸까?

4 단결, 연대

(사진 4) 규탄 기자회견, 1인 시위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 함께 모이기, 단결하여 권리 쟁취

2020년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5 무엇을 얻었나

노조설립, 유니폼 개선, 직접 고용

(PPT내 링크)

2020년대

노조 설립

유니폼 개선

직접 고용

'노동 소외' 개념



노동소외

- 주체적으로 노동하지 못함
- 노동의 과정을 결정하지 못함
- 일한 만큼 받지 못함
- 수동적이고 고통스럽게 일함

- 앞에서 노동현장에서 노동의 주체자인 노동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노동시간, 과정, 내용등이 정해지고 있음을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나의 일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따돌려지는, 제외되는 기분이 들어요. 자존감(자신감)이 떨어져요...등등

- 이렇게 무언가로부터 따돌려지고 제외되고 멀어지는 것. 그래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고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소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동에서 소외된 현상을 [노동소외]라고 말할 수 있겠죠.

▶ 이것이 안된다면 '노동 소외'

- 무엇을 만들지 정할 수 있나요?
- 일하는 방법과 속도 등 일(노동)하는 과정을 내가 조정할 수 있나요?
- 일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이 의미 있고, 창의적인가요?
-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협력하며 일할 수 있나요?



조별선택_마무리 활동



선택1 내가 결정한다면

-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노동과정 2가지 결정하기
예) 생산의 종류, 노동과정(일하는 시간, 속도, 방법 등), 임금, 누구와 일할지 등
- 무엇을 결정했는지 이유와 함께 발표하기
- 친구의 발표를 듣고, 나와 같은점, 다른점 나눠보기

내가 결정한다면

- 1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노동과정 2가지 결정하세요
- 예 무엇을 생산할지, 노동과정(일하는 속도와 방법)을 어떻게 할지, 임금, 누구와 어떻게 일할지 등
- 2 무엇을 결정했는지 이유와 함께 발표해 봅시다
- 3 친구의 발표를 듣고 나와 같은 점, 다른 점을 이야기해봅시다



선택2 누가 선택할 것인가

- 술래(왕, 자본가, 회사 등) 1명 정하기
- 술래는 가운데 의자에 눈감고 앉기
- 칠판 모서리 4곳에 결정하고 싶은 '노동과정' 적기
- 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한 곳으로 이동
- 술래가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1가지 말하기
-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아웃되고 '지정된 곳'으로 이동
- 질문: 아웃된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 함께 고민해보기

누가 선택할 것인가

- 1 술래인 '사용자(왕, 자본가, 회사 등)' 1명 정하기
- 2 술래는 가운데 의자에 눈 감고 앉기
- 3 칠판 모서리 4곳에 결정하고 싶은 '노동 과정' 4가지 기록
- 4 학생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노동과정'으로 이동
- 5 술래가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노동과정' 1가지 말하기
- 6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아웃 되어 '지정된 곳'으로 이동



선택3 내가 주인공이라면

- 모던타임즈 마지막 장면(주인공이 길을 떠나는 장면) 보고 주인공이 할 대사 만들기
- 마지막 장면에 더빙해보기





마무리 (5분)



'소외'되지 않는 노동자의 삶을 위해

- 여러분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소외'되지 않는 노동자의 삶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수업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는 노동자의 삶을 위해



3-2. 학습·노동소외 수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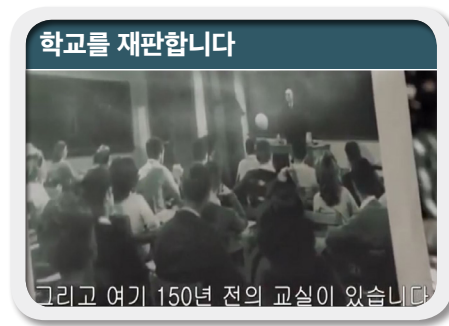


수업 시나리오

열기 15분

💡 '학교를 재판합니다' 영상보고 이야기 나누기

- 학교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릴 질 영상을 같이
보며 생각해봅시다.



▶ 영상시청 후

- 혹시 기억나는 인상적인 장면, 궁금한 장면이 있나요?
- 학교는 무슨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나요?
- 여러분도 같은 생각인가요?



펼치기 (60~70분)



학생은 학습의 주체인가요?

- ▷ 우리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나요?
- ▷ 공부하는 양은 적당한가요?
- ▷ 공부시간은 적절한가요?
- ▷ 학습 환경은 만족스러운가요?
- ▷ 학습 방법은 나에게 맞나요?

※ 학생들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봅시다.




이것이 안된다면 '학습 소외'

- ▷ 하고 싶은 공부를 결정할 수 없다면
- ▷ 공부하는 과정(속도, 방법, 양,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없다면
- ▷ 의미있고 창의적으로 협력하며 공부할 수 없다면
- ▷ 학습 후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 던지기

- 읽기 자료 1.** 일주일 50시간 공부, 수면시간 6시간 이하, 중고생 81%
"학업 스트레스 받아"...'입시공장'으로 전락해버린 학교
- 읽기 자료 2.** 청소년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 고달픈, 한국의 초등학생
- 읽기 자료 3.** PISA 과학 성적 및 흥미도, 수학 학습에 대한 정의적 특성 추이 변화
- 읽기자료 4.** 학원 심야영업 제한
- 읽기자료 5.** 학원 휴일 휴무제
- 읽기자료 6.** 프랑스 초등학생 수업 주4일에서 4.5일로 늘리는 방안에 교사들 반대 파업
(자료는 급별 학교별 다른 읽기자료 필요)



💡 우리 공부에 관한 조건들을 우리가 같이 정해봅시다.

- ▷ 나에게 꼭 필요한 내용
- ▷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
- ▷ 내가 원하는 공부 환경
- ▷ 적절한 공부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학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 각자 원하는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해당 게시판에 붙여주세요.

* 각자의 의견을 모아 모둠별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해서 아래 쪽에 적어주세요.

💡 결정한 것을 전하는 방법 알아보기

- 지나친 학습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일정한 한도를 우리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해봅시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요구해 봅시다. 우리의 요구를 어떤 어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결정한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나요?

학습 노동 기준법	학생 노동 조합
시위(1인, 단체)	대자보

▶ ‘학습노동기준법’ 만들기

-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처럼
- 학생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봅시다.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어봅시다.
-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노동 조건을 결정해봅시다.
- 강제 학습의 금지 등
- 교섭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 학교, 교사,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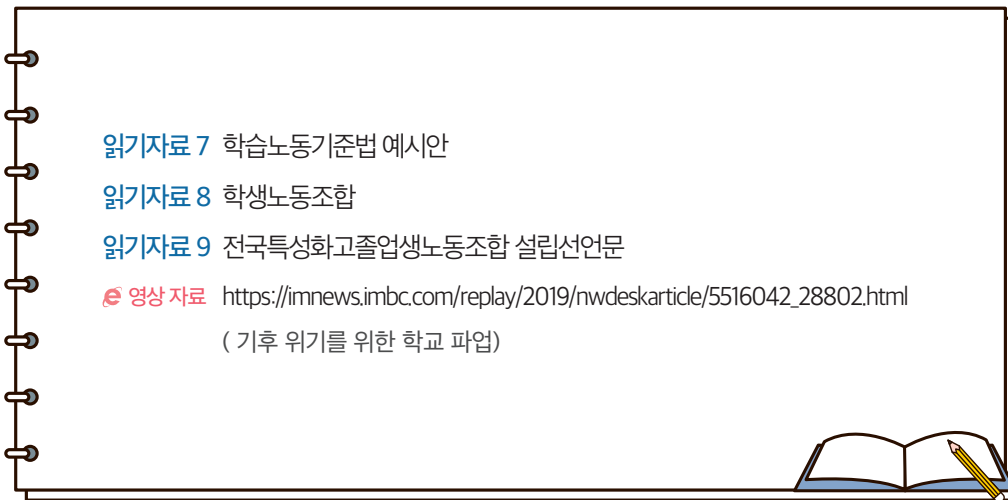
▶ 학생노동조합 만들기

- 실질적인 학생자치(학급회의, 전교어린이회의, 청소년의회)의 형태로 학생노동조합이 만들어질수도 있습니다.
- 학생노동조합을 통해 요구(협상, 교섭)하고 싶은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
- 나에게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
- 쉴 권리, 놀 권리, 아무 것도 안 할 권리...

▶ 시위, 대자보 등

- 시위 (1인, 단체)
- 대자보 (의견 쪽지나 의견 벽보 붙이기)
- 학교, 학급 학생 자치회를 통해 학교에 건의하기
-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교육부, 구청, 시청, 정부 등에 민원 넣기
- 청와대 국민청원하기
-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하기
- 등교 거부하기

※ 기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 청소년들이 함께 하고 있음



읽기자료 7 학습노동기준법 예시안

읽기자료 8 학생노동조합

읽기자료 9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설립선언문

영상 자료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16042_28802.html
(기후 위기를 위한 학교 파업)

💡 '학습·노동소외' 개념

▶ 소외란

- 앞 수업에서 학습의 주 당사자인 학생으로서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학습 시간, 과정, 내용이 정해지고 있음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아니지만, 해결하는 연습도 해 보았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따돌려지는, 제외되는, 자존감(자신감)이 떨어져요, 해결해보니 기분이 좋아요...등등

- 이렇게 무언가로부터 따돌려지고 제외되고 멀어지는 것. 그래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고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소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학습에서 소외된 현상을 [학습소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소외

- 주위에서 꺼리며 따돌림
- 무리로부터 제외되고 멀어지는 것
- 인간이 자기 본질을 잃는 것
-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것



노동소외

- 주체적으로 노동하지 못함
- 노동의 과정을 결정하지 못함
- 일한 만큼 받지 못함
- 수동적이고 고통스럽게 일함

💡 2020년대 '노동 소외' 사례 알아보기

- 그러면 학교와 달리 우리가 앞으로 나갈 노동현장은 상황이 다를까요? 2020년대 실제 노동 현장을 보고 현재 노동자들은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영상은 '파리바게트 노동자' 인 카페기사의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영상을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봅시다.

▶ 파리바게트 카페 기사 영상에 나타난 문제 이해하기

- 카페기사의 노동은 존중받고 있나요?
-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나요?
- 초과로 작업한 후에 수당을 정당하게 받았나요?
-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1~4번 사진은 사진을 먼저 보여주기/ 5번은 질문 먼저하고 사진은 나중에 보여주기)
 (교사 발문 및 내용 위주로 서술함. 수업 중 학생들의 의견 및 질문을 자유롭게 주고 받기)

1 노동존중

(사진 1) 진정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노동자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고소하고 있는가?]

- 부당노동행위 관리자 처벌, 불법파견업체, 임신 중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 노동자

[우리의 노동은 존중받고 있는가?]



2 노동통제

(사진 2) 파리바게트 케익 제조법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케익의 모양, 재료의 각도, 양까지 통제하고 미준수시 처벌한다는 회사측

[우리의 노동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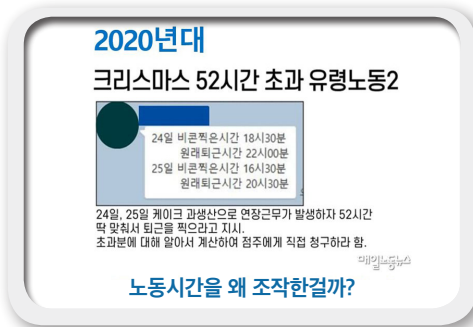
3 분배의 불평등

(사진 3) 초과근무시간 조작

[노동시간을 왜 조작한걸까?]

-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해서 초과수당 착취

[우리는 일한 만큼 가질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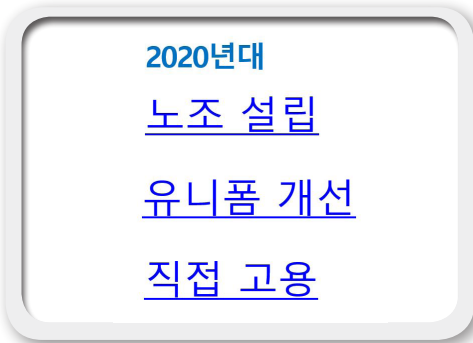
4 단결, 연대

(사진 4) 규탄 기자회견, 1인 시위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 함께 모이기, 단결하여 권리 쟁취



5 무엇을 얻었나

[노조설립, 유니폼 개선, 직접 고용]
 (PPT내 링크)



이것이 안된다면 '노동 소외'

- ▷ 무엇을 만들지 결정할 수 없다면
- ▷ 노동과정을 조정할 수 없다면
- ▷ 일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이 의미있고 창의적이지 않다면
- ▷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없다면

무엇을 만들지 결정할 수 있는가?	노동과정 (일하는 속도,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는가?	의미있고 창의적으로 협력하며 일할 수 있는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가?
--------------------	---------------------------------	---------------------------	------------------

이것이 안된다면!





조별선택_마무리 활동



선택1 내가 결정한다면

-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노동과정 2가지 결정하기
예) 생산의 종류, 노동과정(일하는 시간, 속도, 방법 등), 임금, 누구와 일할지 등
- 무엇을 결정했는지 이유와 함께 발표하기
- 친구의 발표를 듣고, 나와 같은점, 다른점 나눠보기

내가 결정한다면

- 1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노동과정 2가지 결정하세요
- 예 무엇을 생산할지, 노동과정(일하는 속도와 방법)을 어떻게 할지, 임금, 누구와 어떻게 일할지 등
- 2 무엇을 결정했는지 이유와 함께 발표해 봅시다
- 3 친구의 발표를 듣고 나와 같은 점, 다른 점을 이야기해봅시다



선택2 누가 선택할 것인가

- 슐래(왕, 자본가, 회사 등) 1명 정하기
- 슐래는 가운데 의자에 눈감고 앉기
- 칠판 모서리 4곳에 결정하고 싶은 '노동과정' 적기
- 학생들은 자기가 선택한 곳으로 이동
- 슐래가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1가지 말하기
-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아웃되고 '지정된 곳'으로 이동
- 질문: 아웃된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 함께 고민해보기

누가 선택할 것인가

- 1 슐래인 '사용자(왕, 자본가, 회사 등)' 1명 정하기
- 2 슐래는 가운데 의자에 눈 감고 앉기
- 3 칠판 모서리 4곳에 결정하고 싶은 '노동 과정' 4가지 기록
- 4 학생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노동과정'으로 이동
- 5 슐래가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노동과정' 1가지 말하기
- 6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아웃 되어 '지정된 곳'으로 이동



선택3 내가 주인공이라면

- 모던타임즈 마지막 장면(주인공이 길을 떠나는 장면) 보고 주인공이 할 대사 만들기
- 마지막 장면에 더빙해보기





마무리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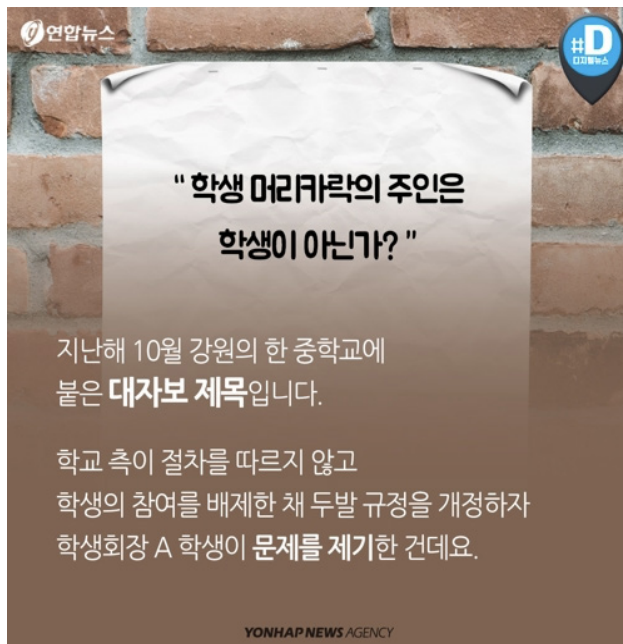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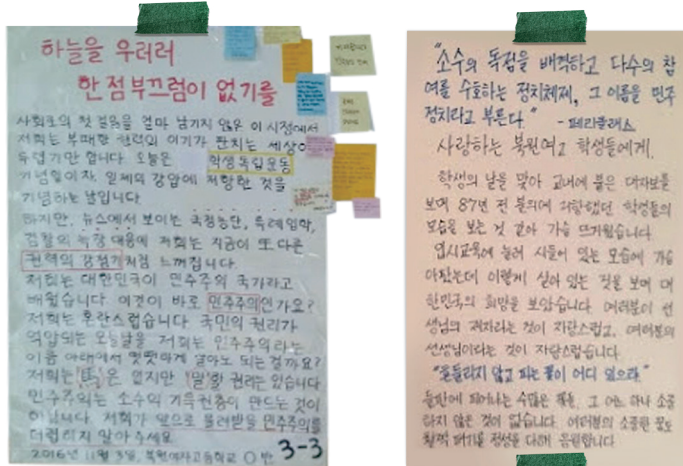
'소외'되지 않는 노동자의 삶을 위해

- 여러분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소외'되지 않는 노동자의 삶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수업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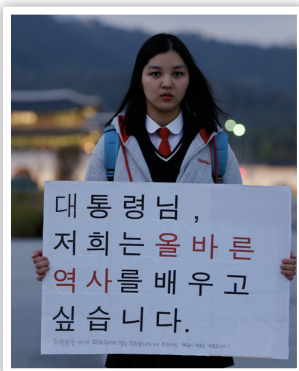
'소외'되지 않는 노동자의 삶을 위해



대자보



1인시위



단체시위하기



[기획] 일주일 50시간 공부, 수면시간 6시간 이하, 중고생 81% “학업 스트레스 받아”... ‘입시공장’으로 전락해버린 학교

학습의 비효율성, 떨어지는 흥미도,
엄청난 학업 스트레스 속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은?

오마이뉴스 2018.12.04 08:03윤태은(agseul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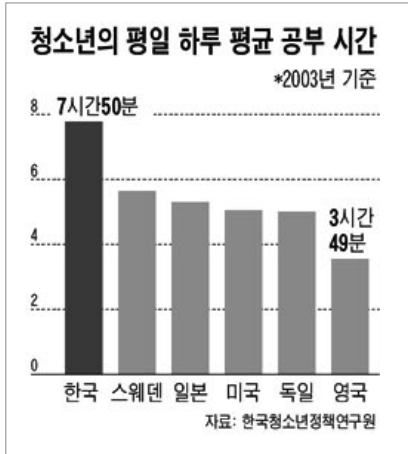
대한민국 학생들은 그동안 각종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 왔다. 수학, 과학, 읽기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등에서 항상 5위권 안에 들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높은 성적을 성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입시, 사교육 중심의 현행 교육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주일 평균 공부시간 50시간, 6시간도 안 되는 수면시간, 중고생 81% “학업 스트레스 받아”. 겉으로 번지르르 해 보이는 학업 성취도 수치 이면의 대한민국 교육 실태를 평가해주는 문장들이다.

학습시간이 훨씬 많음에도 비슷한 성취도...효율성에 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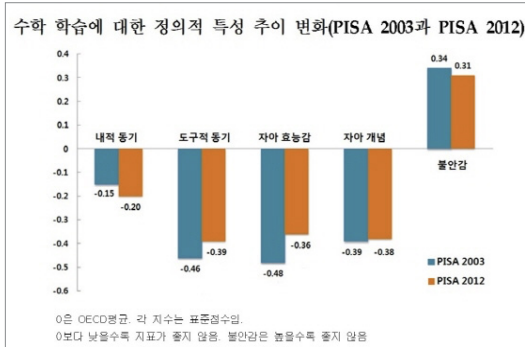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아동·청소년의 생활양식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국내 15~24세 청소년의 평일 학습시간은 학교수업, 사교육, 개인공부시간을 합쳐 7시간50분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시간 전후인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청소년과 비교하면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2~3시간 길다는 의미다. 주요 국가별 청소년의 공부시간은 핀란드 6시간 6분, 스웨덴 5시간55분, 일본 5시간21분, 미국 5시간4분, 독일 5시간2분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청소년이 일주일에 공부하는 시간은 49.43시간으로 OECD 평균(33.92시간)에 비해 15시간이나 많았다. 하지만 더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 고달픈 한국의 초등학생



한국 청소년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영국 청소년의 2배나 됩니다.
초등학생의 학습시간도 중고등학생들과 비슷하게 길습니다.



PISA 과학 성적 및 흥미도

2015년 OECD (과학 35개국, 수학 34개국) 기준

과학 성적		흥미도		수학 성적		흥미도	
1	일본	1	멕시코	1	한국	1	멕시코
2	에스토니아	2	포르투갈	2	일본	2	터키
3	핀란드	3	캐나다	3	스위스	3	덴마크
4	캐나다	4	아이슬란드	4	네덜란드	4	칠레
5	한국	5	룩셈부르크	5	에스토니아	5	그리스
6	뉴질랜드	12	뉴질랜드	11	오스트리아
...
18	포르투갈	26	한국	28	한국	28	한국
...	...	28	일본	30	일본	30	일본
35	멕시코	35	체코	33	칠레	34	오스트리아
				34	멕시코		

자료: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참여진 기자 / 20170413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tN1

학원 심야 영업 제한

좋은교사운동은 “22시로 심야학원을 규제하는 것이 학생들의 과도한 심야학습을 제어하는 효과가 분명하다”고 말하고,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교육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현재 23시, 24시까지 허용하고 있는 학원영업을 22시로 앞당겨야 할 것”이라 말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조례를 통일시켜 국회 차원의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휴일휴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원휴일휴무제를 학부모의 95%가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지역의 조례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없다”고 했다. ‘쉽이 있는 교육’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향후 총선과 관련, 심야영업제한과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정당과 후보들의 입장을 묻고 국민 앞에 공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출처] 기독교일보 <https://www.chriandaily.co.kr/news/66806#share>

학원 휴일휴무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학습 경쟁’으로 굳어진 우리나라 교육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휴일 사교육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과도한 학습노동 경쟁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한경쟁 입시 속에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간다. 학부모들도 입시 경쟁에 지쳐 있다.”

“일정한 한도를 정해 학생들을 과열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받은 뒤 현재 학원 수업은 최대 밤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일 제한은 없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에도 수업을 하는 학원이 많습니다.

“학원 휴일휴무제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큽니다.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섯다운제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처럼 **학원 휴일휴무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쉬이 있는 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고교 야간자율학습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실험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2019년 초 “초등학생부터 순차적으로 학원 휴일휴무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학원 휴일휴무제 및 학원비 상한제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중고교생 36%가 일요일에도 학원 강의를 수강하며, 사교육을 포함해 일요일 공부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8.6%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해 찬성 의견은 중학생 75.5%, 고등학생 51.9%, 학부모 68%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수업 주4일에서 4.5일로 늘리는 방안에 교사들 반대 파업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에서 지난 9월 신학기부터 도입된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중 41.3%가 주5일제 수업제도 폐지를 요구하면서 수업을 거부했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초등학교 교사 중 23%가 파업에 참가해 수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원 노조는 이날 파리 시청 앞에서 주5일제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노동총연맹(CGT)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여 파리 520개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점심 급식과 과외 활동 수업이 제공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학기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수요일에 쉬어 일주일에 4일만 수업을 했다.

그런데 주 4일 수업으로 주중 다른 날에 수업이 너무 늦게 끝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프랑스 정부는 올해부터 수요일 오전에도 수업하도록 해 사실상 주 4.5일 수업 제도를 도입했다.

전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주 4일제로 줄인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이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들은 수업 일수 증가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수요일 교육 프로그램도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55개 지방 도시의 시장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면서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뱅상 페이옹 교육부 장관은 "시장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서 주5일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여론조사기관 CSA가 이날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4%의 프랑스인들은 주5일제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노동기준법 예시안

<학습노동기준법 : 예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용어의 뜻을 정해봅시다)

1. '학생' 이란
2. '부모' 란
3. '교사' 란
4. '학습' 이란
- 5.

제3조 학습노동조건 :

제4조(학습노동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학습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학습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학습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5조(학습노동조건의 결정) 학습노동조건은 학생과 부모, 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학습노동조건의 준수) 학생과 부모, 교사는 각자가 단체협약, 학습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7조(균등한 처우) 부모와 교사는 학생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학습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8조(강제 학습의 금지) 부모와 교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학생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학습을 강요하지 못한다.

제9조(폭행의 금지) 부모와 교사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학생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조(휴식권 행사의 보장) 부모와 교사는 학생이 학습시간 중에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휴식과 놀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협의하여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제12조(법령 알리기) ① 부모와 교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규칙을 학생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학생노동조합

<학생노동조합>

1. 학생노동조합의 형태

- ①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
- ② 마을에서는 청소년 자치회
- ③ 가정에서는 형제자치회(형제가 있을 경우, 형제가 없을 경우 주변 이웃의 친구들과 청소년 자치회를 구성한다.)

2. 권리 : '단결권'(모일 수 있는 권리), '단체협상권'(학습노동조건을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등교거부권, 쉴 권리, 놀 권리, 충분히 잠 잘 권리 등)

- ① 학교에서는 '단결권'(모일 수 있는 권리), '단체협상권'(학습노동조건을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등교거부권, 쉴 권리, 놀 권리, 등)
- ② 마을에서는 '단결권'(모일 수 있는 권리), '단체협상권'(학습노동조건을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학원 등원거부권, 쉴 권리, 놀 권리, 충분히 잠 잘 권리 등)
- ③ 가정에서는 '단결권'(형제가 있을 경우 모일 수 있는 권리), '단체협상권'(학습노동조건을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등교거부권, 등원거부권, 쉴 권리, 놀 권리, 충분히 잠 잘 권리 등)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설립선언문

〈우리는 생각합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시간도 없이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열아홉살 특성화고 졸업생 청년노동자를 생각합니다. 무거운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콜 수를 다 못채웠다”는 문자를 남기고, 끝끝내 숨진 열아홉살 전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자를 생각합니다. 생일을 닷새 앞두고 살벌한 프레스 기계에 끼어 숨진 열여덟살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자를 생각합니다. 다음달엔 여행을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작은 행복을 바라던, 이마트에서 무빙워크 수리 도중 몸이 끼어 숨진 특성화고 졸업생 스물한살 청년노동자를 생각합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세상에 나선 그들은 채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행복을 바라며 부푼 꿈을 안고 세상에 나섰지만,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그들의 죽음을 막지 않아서, 어쩌면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죽음을 부추겨서 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다시 떠올립니다.

〈‘너는 나다’ 우리는 그들입니다〉

우리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생애 첫 노동을 시작하며 부푼 꿈을 안고 세상에 나선 특성화고 졸업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강제야간근로, 임금체불, 새벽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이었고, 성희롱과 성추행을 비롯한 폭언과 폭력 속에서,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모욕과 차별 속에서, CCTV로 노동하는 모습을 감시 당하는 가운데에서, 과도한 노동을 당연한듯 강요받는 분위기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저 운 좋게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구의역 김군, 전주 홍양, 제주 이군, 이마트 이군. 너는 나다! 우리가 그들입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들을 힘겹게 내어놓는 일은 슬프기만 합니다. 상식이 상식이지 못한 현실에 분노합니다.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성화고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사회 속에서 온 몸으로 맞는 견고한 불의의 벽이 두렵기도 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곳에 섰습니다. 분노를 느끼면서, 서러움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더 일찍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두배 세배 노력하며 살아가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전국 곳곳에서 값싸게 쓰고 버릴 부품쯤으로 여기는 회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차별과 무시,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한 폭언과 폭력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멀고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일이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움 속에서 외칩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나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손톱만큼이라도 고쳐내야 할 것이라는 의지로 생애 첫 노동을 시작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모여 우리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2018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사람다운 삶’이라는 꿈을 향해,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의 설립을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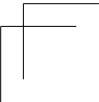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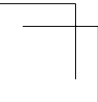
2018년 5월 1일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청년·청소년 노동교육 표준교안

권리확산과 공공성

4강





04 권리확산과 공공성



목표 및 내용

학습 목표



1. 민주노조의 투쟁으로 권리가 확산되고 공공성이 강화되어 왔음을 이해한다.
2.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3. 연대를 통해 권리가 확산되고 공공성이 강화됨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노조가 권리 확산시킨 사례 살피기
2. 공공성을 지키는 노조의 투쟁 살피기
3. 연대 게임하기
4. 활동 소감 나누기

준비물



- ppt / 활동지

수업 흐름



수업 시나리오

열기 30분

💡 내가 만약 화물 노동자라면

▶ 활동지 내용 파악하기

- 화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내가 만약 화물 노동자라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 나의 요구나 행동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 내가 만약 화물 노동자라면 누구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지 생각해 보기

※ 자료는 반 전체가 함께 읽고 모둠활동으로 들어가게 한다. 바로 모둠 활동으로 들어갈 경우 자료를 읽지 않아 내용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 화물연대본부의 실제 사례

- 화물연대 노조를 만들
- 파업을 통해 운송료 인상
-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교섭의 틀을 만들어 냄
- 여야정치권에서도 표준임금제 도입을 촉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3년간 한시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도입



안전운임제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도’

운임 1만원 증가시
사고 횟수 3.19% 감소

운임이 오르면 안전규제를 위반하거나 차량 유지보수를 소홀히 할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

안전운임제

미국 연구 임금 10% 인상될 때마다
사고 가능성은 6~40%가량 감소

안전운임은
노동자의 권리 확대=사회 전체의 이익 보여줌

-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지만, 일부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적용되며 기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운임이 1만원 증가할 때마다 사고 횟수는 3.19%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이광훈·김태승, 2017)처럼, 안전운임은 노동자의 권리 확대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는 사례다.
-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임금이 10% 인상될 때마다 사고 가능성은 6~4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네덜란드노총에서 조사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에드윈 아테마는 “네덜란드는 적정임금이 도입된 후 차에서 숙식하던 화물차 노동자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훨씬 더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다.

펼치기 (50분)

의료 공공성 강화 사례 살펴보기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시 민주노총의 연대 활동

지금의 건강보험이 탄생하는데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전체 국민의 시각에서 사회개혁을 위해 싸워야 한다.”

공공성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은 보편적인 속성, 이익과 결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 ▶ 보건의료노조 선전지 살펴보기
 - 의료 공공성이 확대된 부분 찾기
- ▶ 노동조합 투쟁의 성과로 얻어진 의료 공공성 확인하기

의료 공공성

권자/보유자와 합계(만원) → 보호자 침대 설치
 → 병실 TV 무료 설치

<노동조합이 이룩한 의료민주화와 의료개혁>

노동조합은 근무조건, 임금인상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내인 진료비 감면

노동조합이 권리확산과 공공성을 강화한 사례 알아보기

- 노동시간 단축 •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최저임금 인상
- 공공부문의 전면적인 민영화 저지 • 비정규직 철폐 • 안전한 일터 만들기 • 촛불 항쟁

한마디

사례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ppt 사진 자료를 이용하여 노조의 투쟁 성과가 권리를 확산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해 왔음을 이해하도록 함

공공성을 강화시킨 사례

노동시간 단축

공공성을 강화시킨 사례

무상급식

노조가 권리를 확산시킨 사례

최저임금 인상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 (단위: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000	6,400	7,000	10,000	8,000	3,000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단위: 원)

노동계: 8,410 (2.7%) / 10,000 (10.4%)

공공성을 강화시킨 사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공성을 강화시킨 사례

비정규직 철폐 투쟁

공공성을 강화시킨 사례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공공성을 강화시킨 사례

민주주의 확장

💡 당신의 선택

- ▶ 아직도 노동조합에 가입 안하셨습니까?



💡 '달콤한 연대' 게임하기

- ▶ 다른 노동자와 연대해야 하는 이유 알기

〈게임 방법〉

1. 노동자 소개 제비를 1개씩 뽑는다.
2. 쪽지에 적힌 노동자가 되어 요구(구호)를 적는다.
3. 모든 노동자는 스티커를 5개 가지고 시작한다.
4. 교실 안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노동자의 요구에 동의하면 스티커 1개를 붙여 준다.
5.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는 경우 노동조합을 만든다.
노동조합을 만들면 선생님께 스티커 2개를 받는다.
6. 제한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사람이 승리한다.



한마디

스티커를 가장 많은 받은 학생에게 사탕을 반 친구들에게 학생에게 나누어 주게 한다.

다른 친구들이 연대해준 덕분에 스티커를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연대에 보답하는 의미로 사탕을 반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기회를 준다고 한다.

학교 예산으로 사탕이나 초콜릿을 구입할 수 없다면 스티커를 가장 받은 학생이 연대 감사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10분)

💡 활동하고 느낀 점 나누기



한마디

활동하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누기

권리확산과 공공성

- 화물차, 어쩌다 흥기? “부적절 운임체계 탓”...
호주·미국·네덜란드 화물차 노조·연구자 만나보니
[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12158005&code=940702#csidx90cd492aedba1e2ac0de5013d25f38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012158005&code=940702#csidx90cd492aedba1e2ac0de5013d25f384)
- 또 하나의 화물자동차 안전띠 ‘안전운임제’
[e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43](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43)
- 화물트럭 운전 아빠 월급, 내 알바비 정도라니...
[e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39877.html](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39877.html)
- ‘코로나19’ 감염되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e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1](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1)

내가 만약 화물 노동자라면...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다음의 자료들을 읽고 모둠별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료 1.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만, 노동자처럼 일하고 자영업자로 취급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 운전자는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건당·종량당 수수료를 받는다. 건당 수수료를 받음으로 과속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11년에 40톤 컨테이너를 옮기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거리를 1번 오가면 78 만원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한 번에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물류창고에서 오래 기다리게 되어 하루 18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장시간 노동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매년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51%는 화물자동차 사고이고 이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과적도 비밀비재하다. 한국의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는 2015년 이후 매년 4만6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과적 차량은 도로와 다리 등의 균열이나 포트홀(도로 위 구멍)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이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부른다. 화물차를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3과’로 불리는 과적·과속·과로라는 일상적인 노동환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낮은 운임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시간에 쫓기며 장시간 노동을 한다. 결국 구조적으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도로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자료 2.

우리 아빠는 25t 화물트럭 기사이다. 서류상으로는 차가 두 대나 있고, 월수익도 800만원 이 넘는 고소득자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빠는 이와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차 중에 한 대는 제구실도 못 하는 덜덜거리는 중고 봉고차이고, 다른 한대는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1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산 25t 트럭이다.

아빠의 실소득은 100만~200만원 정도다. 아빠의 실소득을 계산하려면 빼야 할 것이 너 무 많아서 그렇다. 물론 제일 먼저 빼야 할 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기름값이다. 사람들은 한 달 기름값이 50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뺀 나머지 200만~300만원이 곧바로 아빠의 실소득이 되는 줄 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25t 트럭에는 무려 14개나 되는 대형 바퀴가 달려 있는데, 이 바퀴들은 무거운 짐 때문에 금방 닳아버려서 1년에 적어도 2~3번씩 바퀴 전체를 갈아주어야 한다. 바퀴 하나당 가격 이 45만원을 넘으니, 한 해 들어가는 바퀴 값만 해도 평균 6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한 달 고속도로 통행료가 대략 50만원 넘게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야 하는 엔진오 일 값이 35만원에, 운송회사에 차 번호 빌린 값으로 매달 줘야 하는 돈이 25만원이다. 이 렇게 한 달 수익에서 차와 관련된 뺄셈을 마구 하고 나면 수입은 점점 줄어든다.



자료 3.

대형 운송회사 매출액과 화물노동자 수입액 비교

자료: 노동자운동연구소(금융감독원,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자료 재구성)
 ※9개 대형 운송회사: 현대글로벌비스,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세한, 한솔 씨엔에스(ONS), 인터지스, 동방, 국보, 케이씨티시, 운송회사 매출액은 육상운송 부문만 집계.



1. 화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  
~~~~~

2. 내가 만약 화물 노동자라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  
~~~~~  
~~~~~  
~~~~~

3. 나의 요구나 행동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  
~~~~~  
~~~~~

4.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  
~~~~~  
~~~~~  
~~~~~

달콤한 연대

학년 반

이름

노동자 소개 자료를 읽고 노동자의 요구를 생각하여 적어 보세요.



나는 교사 노동자입니다.
 교사 노동자는 노동기본권 중 단체 행동권 즉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교사 노동자들이 파업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교사
 들은 학급당 인원수 감축, 모든 학교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임금 인상, 모든 학교
 에 전일제 보건 교사를 배치할 것, 모든 학교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사서를 돌
 것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습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교사들의 파업은 지
 역 주민들의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요구

※ '달콤한 연대' 활동하는 방법

1.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2.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3. 상대 노동자의 요구를 보고 지지하는 까닭을 적고 스티커를 1개 붙여 줍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에 대해 지지하는 까닭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쓰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4. 지지하지 않는 경우 인사를 하고 다른 노동자를 만나러 갑니다.
5.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선생님께 스티커를 2개 받습니다.
6. 정해진 시간 안에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자	동의(지지)스티커	동의(지지)하는 까닭

달콤한 연대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노동자 소개 자료를 읽고 노동자의 요구를 생각하여 적어 보세요.



나는 급식 조리 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이고 방학 중 비근무자로 방학에는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기간제 노동(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학교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학교가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급식 조리 노동자들은 수백명의 급식을 빠른 시간에 조리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골병이 들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지정입니다. 튀김이라도 튀길 때는 유해가스로 조리실이 가득 찹니다.

요구

※ '달콤한 연대' 활동하는 방법

1.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2.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3. 상대 노동자의 요구를 보고 지지하는 까닭을 적고 스티커를 1개 붙여 줍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에 대해 지지하는 까닭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쓰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4. 지지하지 않는 경우 인사를 하고 다른 노동자를 만나러 갑니다.
5.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선생님께 스티커를 2개 받습니다.
6. 정해진 시간 안에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자	동의(지지)스티커	동의(지지)하는 까닭

달콤한 연대

학년 반

이름

노동자 소개 자료를 읽고 노동자의 요구를 생각하여 적어 보세요.



나는 경찰 노동자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 노조가 없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 직군은 국민 생명과 직결 되는 업무를 하거나 기밀을 다룬다는 이유로 직장협의회 활동이 금지되었다가 법 개정으로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소방노조의 결성 움직임이 보입니다.
 유럽은 영국을 제외하고 노동기본권이 모두 보장됩니다. 영국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권리는 갖고 있습니다. 말단 경찰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인권 경찰과 거듭나기 위해서는 노동 조합 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구

※ '달콤한 연대' 활동하는 방법

1.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2.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3. 상대 노동자의 요구를 보고 지지하는 까닭을 적고 스티커를 1개 붙여 줍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에 대해 지지하는 까닭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쓰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4. 지지하지 않는 경우 인사를 하고 다른 노동자를 만나러 갑니다.
5.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선생님께 스티커를 2개 받습니다.
6. 정해진 시간 안에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자	동의(지지)스티커	동의(지지)하는 까닭

달콤한 연대

학년 반

이름

노동자 소개 자료를 읽고 노동자의 요구를 생각하여 적어 보세요.



나는 타투 노동자입니다.
 타투이스트는 해외에서 아티스트 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세계에서 인정한 예술가 직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가 없어 타투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직업인 양성도 안되고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을 낼 수도 없고 범죄에 노출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고 수익에 정당한 세금을 내고 법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일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타투 노동자와 손님 모두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위생 및 감염관리 가이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요구

※ '달콤한 연대' 활동하는 방법

1.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2.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3. 상대 노동자의 요구를 보고 지지하는 까닭을 적고 스티커를 1개 붙여 줍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에 대해 지지하는 까닭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쓰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4. 지지하지 않는 경우 인사를 하고 다른 노동자를 만나러 갑니다.
5.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선생님께 스티커를 2개 받습니다.
6. 정해진 시간 안에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자	동의(지지)스티커	동의(지지)하는 까닭

달콤한 연대

학년 반

이름

노동자 소개 자료를 읽고 노동자의 요구를 생각하여 적어 보세요.



나는 청소 노동자입니다.
 10년을 대기업 빌딩 청소를 했습니다. 10년을 일했지만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과 커피 한 잔 여유 있게 마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어 조금이나마 치우
 를 개선해보고자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청
 소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였습니다.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노조할 권리가 있
 다고 했는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노조 탄압의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복직 투쟁을 할 것입니다. .

요구

※ '달콤한 연대' 활동하는 방법

1.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2.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3. 상대 노동자의 요구를 보고 지지하는 까닭을 적고 스티커를 1개 붙여 줍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에 대해 지지하는 까닭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쓰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4. 지지하지 않는 경우 인사를 하고 다른 노동자를 만나러 갑니다.
5.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선생님께 스티커를 2개 받습니다.
6. 정해진 시간 안에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자	동의(지지)스티커	동의(지지)하는 까닭

달콤한 연대

학년 반

이름

노동자 소개 자료를 읽고 노동자의 요구를 생각하여 적어 보세요.



나는 방송국의 프리랜서 피디입니다.
 방송국에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방송국 피디, 아나운서, 작가, 스태프 등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라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 시달리고
 있습니다. 10년째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곧바로
 프로그램 하차로 이어집니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열정페이, 장시간 노동, 부
 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
 된 노동자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구

※ '달콤한 연대' 활동하는 방법

1.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2.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3. 상대 노동자의 요구를 보고 지지하는 까닭을 적고 스티커를 1개 붙여 줍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에 대해 지지하는 까닭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쓰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4. 지지하지 않는 경우 인사를 하고 다른 노동자를 만나러 갑니다.
5.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선생님께 스티커를 2개 받습니다.
6. 정해진 시간 안에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자	동의(지지)스티커	동의(지지)하는 까닭

달콤한 연대

학년 반

이름

노동자 소개 자료를 읽고 노동자의 요구를 생각하여 적어 보세요.



나는 주얼리 세공 노동자입니다.
 주얼리 세공 사업장은 영세하여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4대 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일하다 다쳐도 개인이 치료를 부담하거나 산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청산가리, 황산 등 화학약품을 보호 장비와 환기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만 4대 보험 미가입으로 특수건강검진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해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요구

※ '달콤한 연대' 활동하는 방법

1.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2.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3. 상대 노동자의 요구를 보고 지지하는 까닭을 적고 스티커를 1개 붙여 줍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에 대해 지지하는 까닭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쓰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4. 지지하지 않는 경우 인사를 하고 다른 노동자를 만나러 갑니다.
5.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선생님께 스티커를 2개 받습니다.
6. 정해진 시간 안에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자	동의(지지)스티커	동의(지지)하는 까닭

달콤한 연대

학년 반

이름

노동자 소개 자료를 읽고 노동자의 요구를 생각하여 적어 보세요.



나는 콜센터 노동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민원콜수는 증가하였지만 상담사 인원은 늘지 않아 화장실도 순번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방광염, 신우신염 등의 병을 앓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루 평균 120콜수를 채워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2~3시간만 일해도 마스크가 흠뻑 젖습니다. 또 콜수로 성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담사들은 제대로 쉴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분 비정규직화를 선언했지만 공공기관의 민원 콜센터 노동자인 나는 아직까지 직접 고용되지 못하고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입니다.

요구

※ '달콤한 연대' 활동하는 방법

1.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2.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3. 상대 노동자의 요구를 보고 지지하는 까닭을 적고 스티커를 1개 붙여 줍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에 대해 지지하는 까닭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쓰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4. 지지하지 않는 경우 인사를 하고 다른 노동자를 만나러 갑니다.
5.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선생님께 스티커를 2개 받습니다.
6. 정해진 시간 안에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자	동의(지지)스티커	동의(지지)하는 까닭

달콤한 연대

학년 반

이름

노동자 소개 자료를 읽고 노동자의 요구를 생각하여 적어 보세요.



나는 대기업 자동차를 조립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정규직이 오른쪽 문을 조립하면 나는 왼쪽 문을 조립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 복지, 처우 등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규직은 대기업 소속이고 나는 하청회사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기업에 지시를 받는다면 모두 정규직이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난지 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회사는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

※ '달콤한 연대' 활동하는 방법

1.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2.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3. 상대 노동자의 요구를 보고 지지하는 까닭을 적고 스티커를 1개 붙여 줍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에 대해 지지하는 까닭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쓰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4. 지지하지 않는 경우 인사를 하고 다른 노동자를 만나러 갑니다.
5.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선생님께 스티커를 2개 받습니다.
6. 정해진 시간 안에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노동자	동의(지지)스티커	동의(지지)하는 까닭

달콤한 연대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노동자 소개 자료를 읽고 노동자의 요구를 생각하여 적어 보세요.



나는 게임 개발 노동자입니다.
 게임을 좋아하고 내가 만든 게임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생각에 야간, 연장, 휴일 근무로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여 정말 힘듭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휴일 근무 시간을 예상하여 미리 임금에 포함시킨 지급한 임금 방식으로 제대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나쁜 임금 체계입니다. 최근 게임 업계에도 노조가 만들어져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구

※ '달콤한 연대' 활동하는 방법

1.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2.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3. 상대 노동자의 요구를 보고 지지하는 까닭을 적고 스티커를 1개 붙여 줍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요구에 대해 지지하는 까닭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쓰고 스티커를 붙입니다.
4. 지지하지 않는 경우 인사를 하고 다른 노동자를 만나러 갑니다.
5.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만나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선생님께 스티커를 2개 받습니다.
6. 정해진 시간 안에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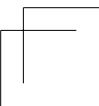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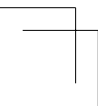
노동자	동의(지지)스티커	동의(지지)하는 까닭

청년·청소년 노동교육 표준교안

노동조합 들여다보기

5강





05 노동조합



목표 및 내용

학습 목표



1. 우리 주변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음을 이해한다.
2.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점을 찾아 이야기한다.
3. 노동조합, 노동기본권이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함을 이해한다.
4. 단결된 노동조합의 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음을 인식한다.

학습 내용



1. 우리 주변 노동환경, 더 나은 노동환경 만들기
2. 안전한 노동을 위해 우리가 할 일 알아보기
3. 노동조합, 노동 기본권의 개념
4. 모의 단체 교섭안 만들기
5. 내 삶을 바꾸는 노조

준비물



- ppt / 활동지

수업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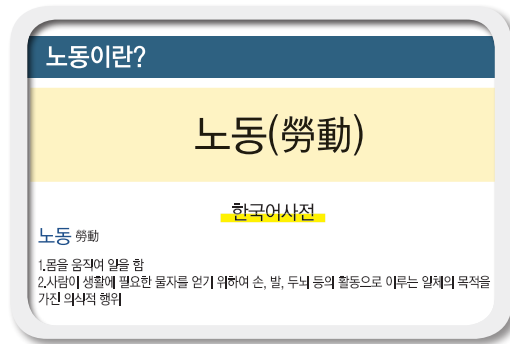


수업 시나리오

열기 (10분)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누기

▶ 노동의 뜻 알아보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노동자와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보거나 들었던 내용 나누기

-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노동으로 살아가고 있다”
- 내가 경험한 것, 가족, 친척 혹은 미디어에 나온 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 나누기

📖 펼치기 (60분)


💡 노동조합이란?

▶ 노동자의 무기인 '노동조합'

- 지금의 대공장 노동자들이 누리는 노동조건, 임금 상승은 생존권뿐 아니라 인권 침해를 당하던 개별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투쟁하여 이루어낸 성과들임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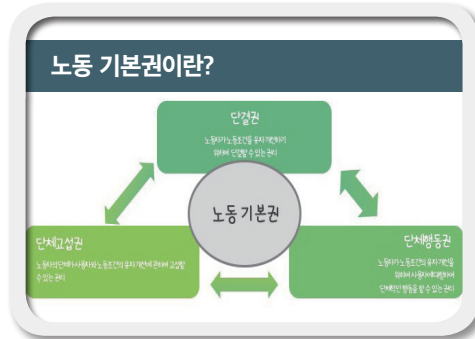
💡 노동 기본권이란?

▶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

-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 왜 헌법에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할까?

- 노동조합의 활동이 결국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고, 역사를 옹기 발전시킨다”는 것이 그동안의 역사를 통하여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 왜 노동자에게만 권한을 줄까?

- 사용자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강자이고 노동자들은 약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

제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 4권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 노동자 이익균점권

이익균점권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노동자가 이익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 한 것임, 이익이 생기면 나눠 먹어라!

💡 노동조합을 왜 가입해야 할까?

▶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직장 탁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적 제도가 많음
-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춤
- 임금을 올림
- 임금 불평등 완화시킴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효과

3. 임금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정규직은 7%, 비정규직은 10.7% 정도 높은 임금을 받음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결과

노동조합의 임금분배 효과

노동조합 조직률 10%p ↑	▶	비조합원 평균 임금 5% ↓
출처: 황선웅(2017), 노동조합이 비조합원 임금에 미치는 영향-지역 수준 분석		
노동조합 가입률 1%p ↑	▶	임금 격차 6.5% ↓
출처: 이병희(2017), 노동조합이 임금 분배에 미치는 영향:1987-2016		

💡 노동조합 결성 사례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

- 2013년 7월 14일, 분급(분 단위로 계산하는 급여) 이동시간, 고객에게 설명하는 시간, 수리 준비 시간 등은 다 빼고 제품을 고치는 시간만 계산해 분당 225원의 임금을 받음. 업무 중 사고도 개인보험 처리, 차량유지비, 주유비, 통신비 모두 개인 부담, 장시간 노동, 휴일근무, 연장근무에도 수당없음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 결성
- 성과 임금체계 개선, 리스차, 공구, 안전 장비 지급, 실적 압박, 강제노동 등 불합리한 관행 탈피



▶ 넥슨노조 스타팅 포인트

- 2018년 9월 3일,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넥슨 지회, 게임업계 최초로 노조 출범

- 단체협약의 3대 과제

첫째로, 포괄임금제 폐지와 휴식권 보장으로 인한 워라밸의 확보

*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중 임금과 관련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

둘째로, 고용안정

셋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의 재분배

- 교섭 성과

포괄임금제 폐지, 권고사직 폐지, 항공마일리지와 제주생활 지원 등의 복지 확대 방안을 비롯해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도 확대, 임금인상 등

노동조합 사례-넥슨 지회

단체협약 3대 과제

▶ 첫째, 포괄임금제 폐지

▶ 둘째, 고용 안정

▶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부의 재분배

▶ 타투유니온지회

- 오래전부터 우리 노동시장에 존재했지만, 정당한 직업군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타투이스트들.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2020년 2월 27일 노조 출범

- 타투유니온지회 설립 선언문, "얻어진 수익 만큼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타투노동자'이고 싶다"며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를 바꾸어 '일반 직업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정기건강검진

과 산업재해로부터의 돌봄 ▲의료계와의 협업 통해 전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위생 및 감염관리 가이드 제작 및 배포 ▲안전하고 공정한 산업환경 준비 ▲타투이스트를 위한 법률 자문/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앞선 타투 문화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노동조합 사례



💡 모둠별로 노동자 정하기

- ▶ 교사가 준비한 노동자(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감정노동자, 급식조리사, 소방공무원, 유해물질 관련 노동자)중에서 선택하기
- ▶ 학생이 이야기했던 노동자나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노동자를 골라 모둠별로 기본학습지를 나눠주기

우리 주변 노동자와 노동환경

그것이 알고 싶다! 00노동자

자료를 살펴보고
모둠이 함께
바꿔야할 노동환경 정리하기



한마디

- ※ 모둠이 6개일 경우 3-4주제 정도로 선택하게 해서 같은 노동자를 선택한 모둠, 다른 노동자를 선택한 모둠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더 넓은 시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됨
- ※ 교사 판단에 따라 추가학습지를 배부할 수 있음

💡 노동자의 노동환경 살펴보기

- ▶ 모둠별로 노동자의 노동환경 관련 자료를 살펴보기
 - 자료를 살펴보며 바꿔야 할 노동환경을 정리하기

💡 노동조합을 만들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 ▶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 나누기
- ▶ 단체 교섭안 작성하기

💡 발표하기

- ▶ 모둠별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기

자료 활동지
(건설노동자, 배달노동자, 감정노동자, 급식조리사, 소방공무원, 유해물질 관련 노동자)
- 각 기본학습지 1장씩, 추가학습지 2장씩

마무리 (10분)

내 삶을 바꾸는 노동조합

▶ 소감 나누기

- 오늘 수업을 통해 배운 것, 불편했던 점, 궁금한 것들에 대한 소감을 나누도록 한다.
- 노동자의 삶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한마디

- ※ 모둠활동 시간을 줄이더라도 소감 나누기를 꼭 실시한다. 30명 학생 중에는 학습 목표를 달성한 친구들이 반드시 있다. 친구들의 언어를 통해 노조의 필요성, 단결된 노동자들이 내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반 전체가 함께 나누도록 한다.
- ※ '노동조합은 00이다' 활동으로 하고 발표 후 게시하는 방법 중 선택한다.

내 삶을 바꾸는 노동조합



▶ 10분

▶ 10분

▶ 10분

▶ 10분

▶ 10분

▶ 10분

▶ 10분

그것이 알고 싶다 건설노동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건설노동자 한해 500명 사망, 산업재해 방지 대책은? 김용균법 시행령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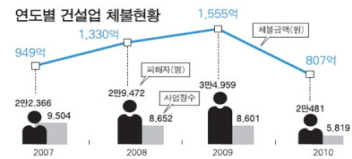
1년에 500명이 아파트, 공장, 빌딩을 짓다가 죽는다. 한국 생활과 건축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50명 사망도 너무 많고 잔혹한 비극이다. 이윤 추구 건설자본의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이런 500명 건설 노동자들 (하청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의식도 이러한 사회적 공동체 범죄에 일조해왔다.

경기도 수원외 한 공장 건설 현장.
지난달 10일, 이곳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5층 화물용 승강기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폐자재를 나르다 열려 있던 승강기 문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한 지 3일만이었습니다.

[김도현 유족]

“취업이 안 되니까 용돈벌이 한다고
나왔던 동생이었고.
숨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음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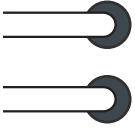
변변한 안전장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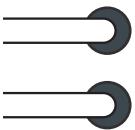
① 바뀌야 할 노동환경을 모두 적어 보세요.

~~~~~  
~~~~~



②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가입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는 안(단체교섭안)을 적어보세요.

~~~~~  
~~~~~  
~~~~~  
~~~~~



③ 위에 적은 요구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적어보세요.

~~~~~  
~~~~~  
~~~~~  
~~~~~



④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  
~~~~~  
~~~~~  
~~~~~

그것이 알고 싶다 배달노동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고수익 올리는 배달노동자?]

배달노동자는 오늘도 사고위험을 품고 달린다 '시간=돈' 시간 줄이려 고군분투하는 배달노동자 ... "고층빌딩 배달 힘들다"

배달노동자는 배달거리 1.2~1.5킬로미터 기준 기본수수료로 약 3천원을 가져간다. 기본·추가 수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거리가 100미터 늘어날 때마다 100원이 붙는다. 추가 수수료를 감안하면 배달노동자는 한 건당 평균 3천~3천500원을 수수료로 챙긴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을 넘기려면 한 시간 안에 세 건 이상을 배달해야 한다. 월소득 500만원을 벌려면 하루 60건을 소화하고 주 6일 근무를 해야 한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유급휴일은 언급생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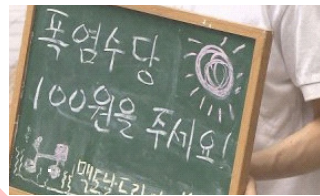
배달 한 건을 놓치면 3천원이 사라진다. 배달노동자는 춘각을 다룬다. 배달처에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씨와 강씨는 "고층건물이 가장 힘들고 짜증 나는 배달처"라고 입을 모았다. 1분 1초가 아까운데 엘리베이터는 층층이 선다. 콜이 붙비는 시간은 점심·저녁시간이다. 고층빌딩에 입주한 회사 직원이 점심을 먹는 시간과 겹친다. 배달노동자가 음식 종류·동선을 고려해 시간을 단축해도 엘리베이터 한 번 잘못 타면 5~10분을 선 자리에서 날려 버린다.

"돈 벌려면 신호위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호 다 지키면서 1시간에
1건 할 거면 이 일을 왜 해요?"

김진원씨는 "신호위반을 하고 인도 사이로 주행할 때면 보행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목례를 하고 지나간다"고 귀띔했다.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먹고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륜자동차 재해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5년간 업무상사고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 이 중 대부분은 배달음식업 이륜자동차 사고"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 자료를 보고 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①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을 모두 적어 보세요.

~~~~~

~~~~~

~~~~~

~~~~~

②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가입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는 안(단체교섭안)을 적어보세요.

~~~~~

~~~~~

~~~~~

~~~~~

③ 위에 적은 요구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적어보세요.

~~~~~

~~~~~

~~~~~

~~~~~

④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

~~~~~

~~~~~

~~~~~

그것이 알고 싶다 감정노동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내가 쓰레기통인가 …” 감정 노동자는 오늘도 웃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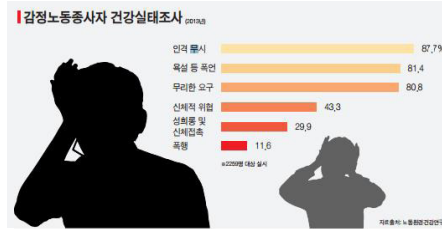
“내가 쓰레기통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해결 방법을 제시해도 어떤 분은 자기 감정을 퍼붓고 싶은 것 같아요. ‘나 그냥 기분이 나쁘다, 네가 내 담당이니까 얘기 들어라’는 식으로 퍼붓는 거죠.”
(직업상담원)

각 분야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 감정 부조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실태조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오늘(24일) 광주시 노동센터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67.5%는 이직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7~9월 콜센터 직원, 요양보호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 29개 직종, 1천166명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입니다.

이직 고려 이유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30.4%), 낮은 임금 조건(21.5%) 등 비중이 컸습니다.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업무 외 요청, 억지 주장, 무리한 요구 등 업무 방해’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묻자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는 응답률을 합쳐 78.8%나 됐습니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은 78.8%, ‘욕설이나 폭언’은 64.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억지 주장, 인격 무시, 과도한 친절을 요구받은 경험을 한 응답자는 45.2%, 성희롱·성추행·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경험한 응답자는 26.9%나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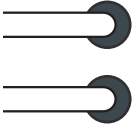
그러나 직장 내 감정표현의 지침(매뉴얼)이 있다는 응답은 26.7%에 불과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악성 고객이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거나 미납 요금을 10원짜리로 준비해 바닥에 뿌렸던 사례 등을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자료를 보고 감정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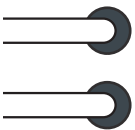
①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을 모두 적어 보세요.

~~~~~  
~~~~~



②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가입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는 안(단체교섭안)을 적어보세요.

~~~~~  
~~~~~  
~~~~~  
~~~~~



③ 위에 적은 요구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적어보세요.

~~~~~  
~~~~~  
~~~~~  
~~~~~



④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  
~~~~~  
~~~~~  
~~~~~

그것이 알고 싶다 급식조리사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흰 손가락과 불에 덴 발... '급식노동자의 고단'이 오롯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밥하는 동네 아줌마'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사진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는 31일까지 8월 한 달 동안 강원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 사진전'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찍은 24장의 사진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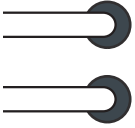
급식 노동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습기, 소음 등에 시달리고 화상과 부딪힘, 인대·골격 손상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강원도내에는 조리사 556명과 전일제 조리실무사 1241명 등 2000여명이 학교 등 각종 교육기관에서 급식 업무를 하고 있다.

우형음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장은 "급식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한 사람당 많게는 160여명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업무 탓에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채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건어 치료비를 보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5080.html>



※ 자료를 보고 급식조리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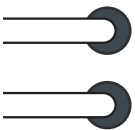
①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을 모두 적어 보세요.

~~~~~  
~~~~~



②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가입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는 안(단체교섭안)을 적어보세요.

~~~~~  
~~~~~  
~~~~~  
~~~~~



③ 위에 적은 요구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적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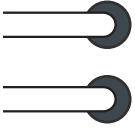
~~~~~  
~~~~~  
~~~~~  
~~~~~



④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  
~~~~~  
~~~~~  
~~~~~


※ 자료를 보고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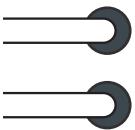
①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을 모두 적어 보세요.

~~~~~  
~~~~~



②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가입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는 안(단체교섭안)을 적어보세요.

~~~~~  
~~~~~  
~~~~~  
~~~~~



③ 위에 적은 요구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적어보세요.

~~~~~  
~~~~~  
~~~~~  
~~~~~



④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  
~~~~~  
~~~~~  
~~~~~

그것이 알고 싶다

유해물질 관련 노동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일할 때 필수적인 작업복의 세탁은 ... 왜 노동자 몫일까



김대훈씨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플랜트(기계·공장 설비시스템) 사업장에서 30년 동안 일했다. 본격 공사 시작 전 선반이나 발판을 쌓고, 크레인 등을 이용해 장비를 옮기는 비계작업이 그의 업무다. 땀, 먼지, 쇳가루부터 미세한 유리섬유까지 김씨의 작업복에는 하루치 노동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있다.

그가 일하는 곳엔 샤워시설이 없다. 세탁소나 세탁기도 없다. 유해물질이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 퇴근한 그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세탁기에 작업복을 벗어던진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가족이 있는 집안에 유해물질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찝찝함에 괴롭다. 너무 더러울 때는 초벌빨래를 따로 돌리지만, 세탁기가 한 대뿐인 가정집에서 번번이 작업복만 따로 빨기란 쉽지 않다. 다른 가족들의 옷과 함께 세탁할 때가 많다. 아들과 딸에게 피부병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김씨는 내내 노심초사했다. 일반 세탁소에 맡기려고도 해봤지만, 공장 노동자들의 작업복은 세탁소에서도 꺼린다. 비용도 부담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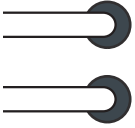
김씨의 고민은 대물림됐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5년 째 정비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의 작업복은 매일 시커먼 기름때 범벅이 된다. 아들의 사업장에도 세탁소나 세탁기는 없다. 작업복 세탁은 김씨의 아내가 주로 담당한다. 눈에 보이는 얼룩은 세탁으로 지워지는 것 같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유해물질은 가정용 세탁기로 씻기거나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다른 가족들의 옷도 오염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걱정된다. 작업복에서 나오는 먼지와 때로 세탁기는 고장이 잦다.

김씨 가족은 궁금하다. 일에 필수인 작업복 세탁은 왜 노동자의 몫인가. 깨끗하고 안전한 옷을 입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욕심인가. 집에 들인 더럽고 위험한 작업복이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110600045&code=940100



※ 자료를 유해물질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노동 시간, 노동 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①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을 모두 적어 보세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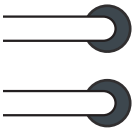


②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가입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는 안(단체교섭안)을 적어보세요.

~~~~~  
~~~~~  
~~~~~  
~~~~~

③ 위에 적은 요구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적어보세요.

~~~~~  
~~~~~  
~~~~~  
~~~~~



④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  
~~~~~  
~~~~~  
~~~~~

그것이 알고 싶다 건설노동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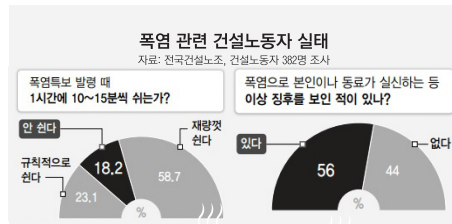
‘폭염 휴사’ 건설 노동자 절반 이상 “나와 동료, 실신 등 증세 보인 적 있다”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가운데 폭염 때 규칙적으로 쉬는 노동자는 열 중 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노동자는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 등 열사병 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내놓는 폭염 관련 노동자 대책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건설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부터 나흘간 목수·철근 등 건설노동자 382명을 대상으로 폭염 관련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이를 연속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기 때 발령되는 폭염특보 때 1시간에 10~15분씩 규칙적으로 쉰다는 노동자는 23.1%에 불과했다. 18.2%는 쉬지 않고 일한다고 답했고, 58.7%는 “재량껏 쉰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은 폭염 주의보(33도 이상) 땀 1시간에 10분씩, 폭염경보(35도 이상) 땀 15분씩 쉬라고 권고한다.

습도가 높을 땀 땀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건설노조는 “이번 조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 현장이 아닌 중소 규모 현장은 더욱 열악하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5587.html#csidx26efc8564613796b1afc08522880224>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바꿔야 할
노동환경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건설노동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화장실도 맘편히 못가는 현장”...
여성 건설노동자들, 노동환경 개선 호소



‘건설의 날’ 건설 여성노동자들 호소
건설노동자의 10%가량 여성이지만 ‘데이트하자’ ‘여자가 현장에 왜’ 등
성희롱·차별 일상화 ... 편의시설도 거의 없어
건설연맹 여성위, 성희롱 예방교육 등 촉구

“세월 좋아졌다, 여자가 현장에 웬 말이나.’ ‘남편은 뭐 하는데 여기에 왔느냐.’ ‘갈 데까지 갔으니 현장까지 왔지.’ ‘술 한잔 하자, 밥 한번 먹자.’ ‘나랑 데이트하자.’ 현장에 들어가니 이런 말들로 여성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이들을 만나게 됐다. ‘그만둬야 하나. 참자, 우리 애들하고 먹고살아야 하는데...’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으며 분노를 참아야 했다. 건설노동자라는 직업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건설 현장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견뎌야 하는 편견과 불평등, 성폭력이 너무 많다.”(형틀목수 조은채씨)

여성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짤 때 여성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성평등한 작업장 환경을 만들고, 수도가 설치된 여성 화장실과 여성 휴게실·탈

의실·샤워실 등을 공사 발주처나 원청사가 설치·관리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현장에서 매달 진행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성희롱 예방·성평등 교육을 포함하고, 기능훈련·취업알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성평등 의식 향상 교육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대처에 있어선 “원청 관리자나 현장에서 채용·급여를 결정하는 반장, 팀장, 소장 등이 대부분 남성이어서 여성 노동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무마되거나, 원치 않는 합의를 강요당하거나, 일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한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만이라도 절실한 것이 건설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8390.html#csidx8e889ae7f1ca5e2ace3e4d7bfef06ce>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배달노동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폭염·폭우 속 일해야 하는 배달 노동자들 “대책 마련해달라”

라이더유니온은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염 수당을 넘어 (배달)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배달료는 현재 배달 건수당 3천원 정도씩 받는 수수료를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린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에서 오토바이 위 온도를 측정했더니 40도에 육박했다. 정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이라 실제 현장에서 강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낮은 배달 단가는 무리한 배달로 이어지고 폭염 속에서 체력 저하, 일사병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라이더들이 충분한 휴식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 배달료, 작업 중지권,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라이더유니온과 녹색연합 등은 서울·인천·수원 등 10개 지역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이후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나들었다고 한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라이더들은 도로 위에서 아스팔트의 복사열에, 배기가스까지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폭염기에는 이런 문제가 가중되고 비가 온다면 안전사고 위험까지 커진다”고 지적했다.

최승현 노무사는 정부가 내놓은 폭염 대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배달노동자

코로나 시대의 택배 : 회사는 돈 벌고 노동자는 쓰러진다

코로나 19의 유행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업종 가운데 하나가 택배업이다. 이른바 '언택트' 추세에 따라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CJ 대한통운과 롯데택배, 한진택배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가 있다. 코로나 19 유행 이후 벌써 3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 의심 증상으로 숨졌다. 뉴스타파가 만난 택배 노동자들은 하나 같이 "코로나 감염보다 더 걱정되는 건 물량 급증에 따른 과로"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숨진 택배 노동자들의 사례를 추적해 이들이 얼마나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같은 과로가 왜 방치되고 있는지를 취재했다.

건강했던 42살 택배 노동자의 죽음
지난 5월 4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42살 정 씨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숨졌다. 정 씨가 숨진 당일 아침 정 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정 씨의 시신을 확인한 동료 택배 노동자 김성순 씨의 말에 따르면, 정 씨는 밤중에 잠을 자다 약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그대로 유언이 되고 말았다.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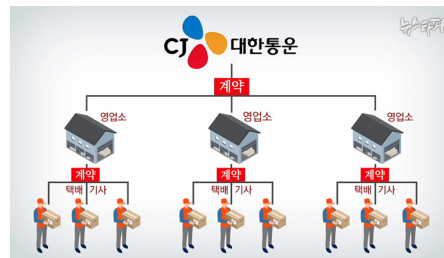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정 씨는 매일 새벽 6시에서 6시 반에 출근해 이르면 저녁 8시, 늦으면 저녁 9시를 넘겨서 퇴근했다.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 씩 주 6일을 근무한 것이다. 주당 노동 시간으로 환산하면 78시간에서 90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 시간인 주 52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개인 사업자로 되어있는 택배 노동자들은 중간 단계인 영업소와 배송 계약을 맺고, 이 영업소가 CJ 대한통운같은 택배회사들과 다시 계약을 맺는 이중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원청인 택배 회사들은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갖지 않는다.

출처 : 뉴스타파



그것이 알고 싶다 감정노동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갑질 당해도 내편 아무도 없어” 백화점 노동자들의 눈물

“어딜 만져 꺼져. 너나 다 먹어 XX야”
젊은 여성이 아버지뻘로 보이는 백화점 보안 요원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얼굴에 콜라를 뿌리고 그릇을 던진 뒤 옷을 잡고 밀친다. 여성은 급기야 자신을 제지하려 다가온 다른 보안 요원의 뺨을 친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백화점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시민이 촬영한 영상이 SNS상에 급속도로 퍼졌다. 폭행을 당한 백화점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 A씨는 처벌 의사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매년 백화점 갑질·난동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A씨처럼 ‘갑질’ 고객에게 법적 대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감정노동자들은 여전히 참고 넘어가는 방법을 택한다.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 회사와 백화점측 갑질에 두 번 상처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감정노동자들이 그저 갑질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도 이들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백화점 노동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입점 브랜드) 소속이다. 백화점과 회사간 갑을 관

계, 본사와 직원 간 갑을 관계 사이에서 노동자는 이중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백화점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의 욕설, 갑질에 ‘무조건 사과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한 백화점에서 만난 의류매장 직원 김모(45·여)씨는 “지난해 한 손님에게 ‘해당 의류는 사이즈가 없다’고 말했다가 ‘내가 똥똥하다고 깔보냐’며 전화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본사와 백화점측도 직원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사과하라고 했다”면서 “잘못하다가는 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덮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와 백화점의 외면은 노동자들의 우울증, 공황장애로 이어진다. 지난 2018년 고려대 김승섭 교수팀이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 2806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6.1%가 우울증, 2.4%는 공황장애로 진단, 치료를 받았다. 이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의 3.5배, 12배다. 김 교수는 국회에서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매장 측도, 이들을 파견한 회사도 갑질로부터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출처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1140296>
<쿠키뉴스>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바뀌야 할
노동환경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감정노동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민원인 폭행·폭언에 멍드는 공무원들 기분 나쁘다며 때리고 욕설까지 / 안전을 위한 적극적 대처 필요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는 민원인들 때문에 공무원들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후 5시쯤 홍성군 〇〇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찾아왔다. 민원인은 약간 술에 취한 듯한 얼굴이었다고 한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 나쁘다며 욕을 하고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다른 공무원의 배를 걷어찼다. 또 다른 공무원에게는 신문 문치를 집어던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행동에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한다. 더군다나 민원인은 홍성군청에서 근무했던 간부 공무원 출신이다.

상반기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군청 복지정책과에는 전화가 빗발쳤다.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지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복성진 복지정책과장은 “심지어 죽이겠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며 “공무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심한 욕설을 들으면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

군수실이 있는 본청 2층에는 수시로 민원인들이 찾는다. 일부 민원인들은 막무가내 군수실로 들어가려 한다. 공무원들이 제지를 하면 욕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군청 공무원들에게 ‘야’ ‘너’ 하며 무조건 상대방에게 반말을 하는 민원인도 있다. 한 공무원은 “정말 민원인들과 똑 같이 욕하고 싶을 때도 있다. 왜 다짜고짜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이 도를 넘는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대책 마련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홍성군청 공무원노동조합 국응서 조합장은 “곳곳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 공직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청 노사협의회에서는 직원 안전을 위해 민원이 많은 부서에 통화녹음 및 감성멘트 도입을 하기로 협의했다.

출처 : 홍성신문(<http://www.hsnews.co.kr>)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급식조리사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찜통더위’ 청주서 학교 급식조리사 잇따라 병원행 어지럼증 호소에 갑자기 쓰러져

충북지역 한 낮 기온이 34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급식 조리원들이 ‘더위 먹음’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11시쯤 청주의 한 중학교 급식조리원인 A씨가 점심급식을 준비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점심 메뉴 중 하나인 두부구이를 요리하던 중 어지럼증을 느껴 더위를 식히기 위해 급식실 내 설치된 에어컨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청주의 다른 중학교에서도 급식 조리원 B씨가 같은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점심 급식으로 초복을 맞아 삼계탕을 조리하던 중 어지럼증을 느껴 휴게실로 가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조퇴를 한 뒤 직접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두 분 다 약간의 어지럼증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다행히 지금은 정상 컨디션을 찾은 것 같다”며 “급식실 내 조리사들의 건강을 위해 여름철 냉방관리를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지만, 불을 이용해야 하는 조리기구가 밀집된 내부 환경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은 사흘째 기온이 34도를 웃도는 등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73047636>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급식조리사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학교급식실 유해가스 '심각한 수준' 조리과정에서 CO2 발생, 기준치의 10배나 12개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없어

학교급식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의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올해 초 발표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영향'이란 제목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실 조리과정에서 최대 295ppm의 일산화탄소와 8,888ppm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적정 공기기준 일산화탄소 30ppm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2017년 경기 수원시의 A중학교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졌다. 올해 부산의 B초등학교에서 2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다.

윤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603개교 중 가스조리기구 사용이 86.9%를 차지하지만, 제주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급식실 공조기·후드 등 국소 배기장치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발표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국소배기장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유해물질 49종 중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포함돼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 : <http://www.newsf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19>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소방공무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소방관 10명 중 6명은 '건강이상'..난청 등 귀질환 최다

소방관 10명 중 6명이 소음성 난청 등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신호가 켜졌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전체 소방관 3만 7638명 중 2만 3415명(62%)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 건강 이상자로 판정 받은 비율은 지난 2012년 47.5%에서 2013년 53.6%, 2014년 56.4%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소방관 중 직업병 소견 혹은 우려 판정을 받은 소방관은 5192명으로 전체의 13.8%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직업병으로는 소음성 난청 등 귀 질환이고 광물성 분진에 대한 폐질환도 많았다. 그 외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기타 광물성 분진에 대한 호흡기질환 등의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소방관이 77%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부산이 각각 75%, 제주가 69.3%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소방관 처우 개선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아픈 소방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보직 변경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등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60922173525494>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소방공무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화마와 싸우는 방화복, 전용 세탁기는 턱없이 부족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입는 방화복은 소방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관리가 더 잘돼야겠죠. 이 방화복의 기능이 손상되는 걸 막으려면 전용 세탁기를 써야 하는데, 이 세탁기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늘음 같은 화재 현장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소방관들의 방화복,

[소방관 : 샤워를 해도 약간 그런 냄새가 남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농연이 잔하기 때문에 옷은 당연히 더 많이 배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세탁한다고 해서 다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소방청 매뉴얼은 방화복 세탁을 위해 방화복 전용 세탁기를 소방기관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즉 KFI 인정시험을 통과한 세탁기인데 일정 수준의 세탁 효과

를 보장하면서도 세탁통 회전 수를 제한해 손상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전용 세탁기보다 속도가 빠른 일반 세탁기로 빨면 열과 액체를 차단하는 섬유가 뜬 방화복 내피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화복 전용 세탁기는 전국의 소방기관 세탁기 1천578대 가운데 절반을 겨우 넘긴 804개뿐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 아주 부족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전 지역이 빨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탁기를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청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기존 세탁기 교체 시점에 맞춰 점차 전용 세탁기로 바꿔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16046&plink=ORI&cooper=DAUM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바뀌야 할 노동환경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유해물질 관련 노동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다녀올게” 오늘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이 해답입니다”

“다녀올게”.

그러나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누군가의 어머니·아버지, 누군가의 아들·딸, 누군가의 아내이자 남편인 그들은 그렇게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갔다가 모두가 기다리는 집으로 ‘퇴근’하지 못했다.

“매해 하루 7명,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온 나라에서 퇴근하지 못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는 노동자·시민의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공무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시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아직도 입법은 감감 무소식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제각각 법안을 발의했지만 내용은 모두 다르다.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 산업재해

2007년 3월 6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세정작업을 하다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에 의해 알려진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2013년 1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불산유출 사고에 삼성과 책임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인과관계가 명백한 사고에도 가벼운 처벌만 있는 상황에서 직업병 관련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황씨 유가족의 문제 제기 뒤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지만 삼성은 오랜 세월 책임을 회피했다.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 이들과 함께한 사람들 덕분에 이제 71명의 피해자들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피해는 여전하다. 올해 7월2일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기준으로 사망자는 199명, 질병피해자는 696명에 달하고 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rtid=202011180600011&code=910402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유해물질 관련
노동자

학년 _____ 반 _____ 이름 _____

3주차 신입이 독가스 처리... 청년의 죽음 아무도 막지 못했다

산재 사망 年 800명... 위험한 작업 환경 / 유대인 학살 때 썼던 맹독성 물질
시안화수소 노출 5분 만에 사망 / 마스크 착용 등 보호장비 없이 작업
비치된 마스크도 기준미달 있으나 마나 / 유해·위험직업 취업제한 등 관리 절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사상 처음으로 800명 대로 낮아졌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인천 남동공단의 도금업체에서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에 노출돼 사망한 23세 청년의 사고도 스스로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A(23)씨는 2018년 5월 28일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그는 3주 전 전자부품 도금업체에 취업했고 완제품 건조와 포장 작업을 했다. A씨는 그날 대체인력으로 처음 도금 공정에 투입됐다. 그는 도금 공정에 대해 잘 몰랐지만 공장장의 지시를 받고 도금 작업에 필요한 시안화합물 용해액을 준비했다.

응급실로 실려 온 A씨는 간수치가 급상승하고 신장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다. 의료진이 급히 기도삽관과 응급투석을 하는 한편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한 결과 심한 '뇌부종'이 관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혈액검사 결과 혈액 1ℓ 당 이온화된 '시안화수소'가 14.6mg이나 검출됐다. 검출된 시안 이온의 양은 기준치인 0.1mg/ℓ의 '146배'에 달했다. 시안화수소는 시안화나트륨(청산소다), 시안화칼륨(청산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맹독성 물질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에 사용했던 독가스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였다. A씨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지시는 없었고 그는 고무장갑, 장화, 앞치마만 착용하고 작업을 했다. 심지어 비치된 마스크도 '저농도 유기화합물' 용도의 마스크여서 시안화수소를 여과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총 30분간 작업했고, 시안화수소 노출 5분 만에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0110010024&wlog_tag3=daum

자료를 보고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노동시간, 노동강도, 안전, 임금, 복지 등

바뀌어야 할
노동환경

어떻게 알리고
해결할까요

건설노동자

- 📄 <https://www.youtube.com/watch?v=ddHZ0zA7dSw>

 - #산업재해 #김용균 #건설노동자
 -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그들은 왜 떨어지는가?”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
- 📄 <https://youtu.be/i25Q6NlxQy4>

 - 건설노동자 78% “폭염에도 일한다”...‘휴식 권고안’ 무색 / SBS
- 📄 <https://youtu.be/9lDzDD46CE8>

 - JTBC뉴스룸 #건설현장여성노동자
 - [이슈플러스] “화장실도 없다”...건설현장, 10% 여성노동자의 삶

배달노동자

- 📄 <https://youtu.be/nwE9WwBLKR8>

 - 배달노동자 “우리는 유명 노동자”...위험 내몰려도 보호는 없다 / KBS뉴스(News)
- 📄 <https://youtu.be/-OK6AnsyiU8>

 - “건물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위험에 내몰린 배달노동자들 / KBS뉴스(News)
- 📄 <https://youtu.be/OtN4WQ9lggU>

 - 폭염 수당 100원 지급하라”...1인 시위 나선 배달 노동자 / SBS
- 📄 <https://youtu.be/k1xAy8lJQP0>

 - 40대 택배 노동자의 죽음...“한 달 평균 1만 개 배달” (2020.05.06/뉴스데스크/MBC)

감정노동자

- 📄 <https://youtu.be/BF1iZjgXnOw>

 - 우린 모두 감정 노동자.. 울어본 사람이면 감질할 수 없지! 엠빅뉴스
- 📄 <https://youtu.be/ZfwyTT11kaE>

 - “손님은 왕”...잘못된 인식에 아픈 감정노동자들 / YTN
- 📄 <https://youtu.be/GnLjzqlRE88>

 - 욕하고 때리는 악성 민원에 감정 노동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방법 / KBS뉴스
- 📄 <https://youtu.be/1EWkLA3BX38>

 -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웃을 수 없는 ‘감정노동자’ / KBS뉴스

급식조리사

- 📌 <https://youtu.be/7sQeBp7f8W8>
• 1인당 150인분 속도전...급식조리사들 '안전 주의보' JTBC News
- 📌 <https://youtu.be/ec3alF0jGtc>
• 학교급식실 노동강도 도대체 어떻게래?? TV민생연구소
- 📌 https://youtu.be/Fc8IRlmW_XI
• "말 그대로 찜통" 더위에 쓰러지는 급식 조리사들 / 연합뉴스TV

소방공무원

- 📌 <https://youtu.be/l2u9Km3t2no>
• 방치된 '청산가리'...죽음 택한 세공 노동자 / KBS뉴스
- 📌 <https://youtu.be/LmmrGWiCBzI>
• 소방관 10명 중 7명 아프다 "환경 개선 시급" / 연합뉴스TV
- 📌 <https://youtu.be/3T5eZloyDZc>
• 생일 맞은 소방관...근무환경은 '열악' - CCS충북방송
- 급식도 언감생심? 지역 소방관 열악 근무 여전

유해물질 관련 노동자

- 📌 <https://youtu.be/pCVJfsXNZ3Y>
• 23살 노동자의 죽음...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 KBS뉴스
- 📌 <https://youtu.be/WVpSp2kAfXQ>
• [밀착카메라] 노동자들, 작업복 들고 세탁소 전전...왜? / JTBC 뉴스를
- 📌 https://youtu.be/6OzQjw2_ZVY
아픈 아이 낳은 반도체 노동자들... "엄마가 미안해" / JTBC
- 📌 <https://youtu.be/gavvKaYZafg>
• 방치된 '청산가리'...죽음 택한 세공 노동자 / KBS뉴스

-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2614.html>
• 노조원만의 노조? "비조합원 임금 올리는 데 한몫"
-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bi_pidx=30966
• 노동조합으로 만든 '이직 없는 회사'
-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2616.html>
• 노조결성 온몸 던진 사람들 "살맛나는 일터 우리 손으로"

청년·청소년 노동교육 표준교안

발행일

펴낸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원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5층

전화 (02) 2670-9160 / 팩스 (02) 2635-1134

홈페이지 <http://nodong.org>  facebook.com/ekctu  twitter.com/ekctu

 instagram.com/kctu_official  youtube.com/ekctu

ISBN 978-89-93180-69-5